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송 정 희

2015년 2월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송 정 희

2015년 2월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지도교수 허 남 춘

송 정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송정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A Study on <Seoksallim> of Shamanistic Ritual
Performances in Jeju Island

Jeong-Heui, Song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Studies

2014. 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II. 석살림의 개념	5
III. 석살림의 전승양상	24
1. 제차 구성에서의 전승양상	24
1) 개인신앙의 전승양상	24
2) 공동체신앙의 전승양상	46
2. 석살림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전승양상	49
1) 덕담소리와 놀레소리의 전승양상	49
2) 서우젯소리, 담불소리, 니나디소리의 전승양상	56
IV. 석살림의 특징과 분석	69
V. 결론	75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심방 면담조사 일정	4
표 2 큰곳에서 석살림 제차 위치	17
표 3 광청할망본풀이 구연 상황	70

<사진 차례>

사진 1 놀레소리 구연 장면	31
사진 2 [석살림>춤취움] 제차 장면	34
사진 3 서우젯소리 구연장면	38
사진 4 [석살림>배풀이] 제차 장면	39
사진 5 [석살림>영계울림] 제차 장면	39
사진 6 『琴合字譜』 東大 琴譜 <심방곡>	55

ABSTRACT

A Study on <Seoksallim> of Shamanistic Ritual Performances in Jeju Island

Jeong-Heui, Song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f *Seoksallim* in the performance phases of Jeju Island rituals. As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is small scale of ritual performance phase,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new perspective of *Seoksallim* in Jeju shamanism. It is also considered as having its significance and value even with such a study attempt.

Seoksallim is a ritual ceremony where gods or sprits are summoned to the altar and food is offered. Then incenses and candles are lit and drinks are offered followed by singing, dancing and praying. All participants at the venue are active participants in this rite.

Seoksallim is typically performed in one of three methods:

- (1) Ancestor God *Gunwung Ilwol* is summoned at *Chogamje* Phase during a summoning rite.
- (2) Take place as an independent shamanistic ritual between the god-summoning service *Chogamje* Phase, and god-reception rite *Maji-gut*.
- (3) Summon the god as the last phase of a ritual performance at the god-reception rite *Maji-gut*.

In method (1), *Seoksallim* is carried out at the ritual service, *Chogamje* Phase. Through interviews with *Shimbang* “Shaman”, it is found that *Seoksallim* can take place in services such as *Choshinmaji*, *Chosanggye*, *Jetsanggye*, and *Jeohsanggye*. In addition, it can be performed at all types of *Maji-gut* rite, *Chogamje*, and *shincheonggyue* rituals.

In method (2), *Seoksallim* can repeatedly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In method (3), it takes place as the last phase of the rituals such as *Buldomaji*, *Ilwolmaji*, *Chogongmaji*, and *Eegongmaji* rites.

This paper also studies the transmission patterns of *Seoksallim* in two aspects; individual belief and communal faith. The individual faith features all of the three performance methods. However, in the case of communal faith, *Seoksallim* is conducted only when the god *Gunwung Ilwol* is invited and performed.

Through interviews with *Shimbang*, it was established that *Seoksallim* is also performed as an independent ritual service.

This paper studies the transmission patterns focusing on Shamanistic songs, which are sung in *Seoksallim* such as *Deokdam-sori*, *Nolle-sori*, *Seowudget-sori*, *Dambul-sori* and *Ninanni-sori*. In this study, *Deokdam-sori* and *Nolle-sori*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relation of *Shimbang-gok*, “blessing and praying song”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established that *Seoksallim* shares features Goryeo Dynasty in its story with comparison with *Gunwungbon-puri*. It was also found that *Seowudget-sori* is related with God *Seonwangchambong*. Finally, since *Dambul-sori* and *Ninanni-sori* feature Buddhist characteristics, it was established that they are sung only when an ancestor god is Buddhist.

Seowudget-sori and *Dambul-sori* can be learnt relatively easily thanks to the chorus structure in singing. This feature allowed them to spread widely

across Jeju Island, with the result that they are orally narrated at various performance sites and venues still to this day.

Seoksallim features an open structure. All the participants are able to take part in the rite of *Seoksallim* through the ritual performance of *Nolpan*. Furthermore, it functions as the foundation for education for Shaman *Shimbang*. It also includes various contents such as *Gunwungbon-puri*, *Josangshinbon-puri*, and *Yeonudakkuem*. Looking into *Durin-gut*, “ritual”, it is obvious that the role of *Seowudget-sori* is to present and bring out gods.

Keywords: Jeju Island rituals, Seoksallim, Gunwungbon-puri, Josangshinbon-puri, Deokdam-sori, Nolle-sori, Seowudget-sori, Ninanni-sori



I. 서론

이 논문은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에 대한 연구이다. 제주도 무속에서의 석살림에 대한 재인식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제주도 무속에서 제차(祭次)의 형식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동일한 제차가 동일한 방식으로 연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로 다른 제차를 얼러서(복합적으로 섞어)1) 연행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제주도 굿 중에서 석살림 역시 연행되는 방식이나 제차 구성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제차에서는 볼 수 없는 민요의 삽입이라든가, 굿에 참여하는 자가 심방(巫覡)만이 아니고, 본주(굿을 의례한 자) 혹은 신앙민까지 참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 굿의 제차는 초감제-초신맞이-초상제-추물공연-〈석살림〉-보세감상-맞이굿-본풀이-각도비넘-영게들려세움-군웅만판-물놀이-도진-가수리-뒤맞이 순서로 진행된다. 제차 순서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이렇게만 보면 석살림이 굿에서 한 번만 연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석살림이 여러 번 연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제차 안에 소제차로 석살림이 연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살림은 신을 모셔 제상(祭床)에 앉히고 음식을 권하고 나서 향축을 올리고 주잔을 권하고 모두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놀며 기원하는 제차이다.2)

석살림의 뜻을 ‘석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 무속에서 ‘석’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자리(席)를 의미하기도 하고, 제차(祭床)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장단(長短)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용준은 ‘석’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인다고 하였다. 누그러진 조상신(守護神)을 정신 차리도록 즐겁게 놀림을 ‘석롰다’, 그러한 굿을 ‘석살림’ 또는 ‘석시’라 하며,

1) 강정식,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민속연구』 제22집, 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민속학연구소, 2011, 274쪽에서 “얼러기는 이어지는 두 의례에서 거듭되는 소제차를 한번만 하는 경우이다. 앞 의 의례에서는 뒤의 것을 생략하고 뒤의 의례에서는 앞의 것을 생략한다. 앞뒤의 소제차를 두고 그 사이에 본 제차 둘을 함께 편성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8쪽.

그러한 곳의 수를 ‘헌 석’, ‘초석’, ‘일곱 석’ 식으로 부르며, 그 곳을 하는 것을 ‘두 석 푼다’, ‘열두 석 푼다’ 식으로 쓴다고 한다. 그리고 큰곳에는 열두 석을 풀고 작은곳에는 여섯 석, 얇은제에는 세 석을 푼다고 설명하고 있다.³⁾ 또한 석살림은 무용 위주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⁴⁾ 그러나 석살림은 무용보다는 노래에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강정식은 석살림을 신을 청해 모신 뒤에 흥겹게 놀려 신명을 살려내는 제차라고 하였다. 어원적으로는 ‘석+살림’으로 풀이하면 ‘석’은 자리를 의미하는 한자 ‘석(席)’으로 볼 수 있고 ‘석’은 곧 곳판을 의미하는 말이 된다고 하였다. 달리 ‘석’은 연물을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삼석울림, 늦인석, 좇인석 따위의 ‘석’이 그것이라고 하였다.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살림’은 그다지 해석의 어려움이 없으니 ‘살리다’의 명사형으로 이해하면 그만이라고 하였다. ‘석’의 뜻을 무엇으로 해석하든지 석살림은 곳판의 신명을 살려낸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⁵⁾

석살림에서 군웅, 조상, 수호신을 잘 놀리는 제차이다. 하지만 이렇게 신명(神名)을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강정식은 『제주곳의 이해(1) 제차-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강독』에서 석살림은 제주도 곳에서 반드시 연행되는 제차이며, 곳판의 신명을 살려내는 제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인 석살림 제차 양상을 정리하였으며, 군웅신, 조상신 등에 한 정된 제차가 아니라 모든 신을 즐겁게 놀리는 제차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김현선은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에서 곳드리와⁷⁾ 조상신본풀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며 석살림 제차를 설명하였다. 전반적인 제차 설명을 하고 곳드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신을 모시는 관습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다.⁸⁾

3) 현용준, 『사전』, 67쪽, 주석 478 참조.

4)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33쪽.

5) 강정식, 『제주곳의 이해(1) 제차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강독』, 제주학연구소, 2014, 프린트, 87쪽.

6) 강정식, 위의 책, 87쪽-92쪽 참조.

7) 강정식,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민속연구』 제22집, 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민속학연구소, 2011, 275쪽 주석16 참조. 곳드리는 제차를 뜻하며, 젓드리는 신의 위계(位階)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8)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탐라문화학술총서 4집, 보고서, 2006, 189쪽-190쪽.

연구방법으로 본고에서는 기존 자료의 재해석과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석살림 제차의 개념 정리는 기본 자료로 『제주도무속자료사전』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자료에도 석살림 제차가 나오지만 다양한 제차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서의 기록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전사(傳寫)가 모두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 매우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로 석살림의 전승양상을 개인신앙과 공동체신앙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 개인신앙은 곳의 성격이 다른 자료를 선택하였으며, 공동체신앙 또한 영등곳과 신과세제로 곳의 종류가 다른 것을 선택하였다. 개인신앙으로는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¹⁰⁾ 『제주도 추는곳』,¹¹⁾ 그리고 공동체신앙으로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곳』,¹²⁾ 『동북리 본향당곳』을¹³⁾ 중심으로 석살림 제차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문헌자료만으로는 부족하여 현장조사와 심방 면담을 통해 보충하였다. 현장조사는 개인신앙인 경우에 『이연실 심방택 5일곳』을¹⁴⁾ 조사하여 본주가 심방인 경우의 전승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심방 면담조사를 통하여 석살림 제차에 관한 심방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심방 면담조사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
- 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이하 『사전』이라 한다.
10)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탐라문화총서2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이하 『동북 시왕맞이』라 한다.
11) 고광민·강정식, 『제주도 추는곳』, 국립문화재연구소, 도서출판 피아, 2006. 이하 『추는곳』이라 한다.
12)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곳』, 도서출판 황금알, 2005.
13) 강정식, 『동북리 본향당곳』,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인텍스, 2011.
14) 『이연실 심방택 5일곳』은 2014년 11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한 곳이다. 이 곳은 초감제, 불도맞이, 요왕맞이, 시왕맞이, 당주연맞이로 맞이곳 4개를 하였고, 서순실 심방이 수심방으로 오용부 심방, 오춘옥 심방, 김돌산 심방, 이승순 심방이 소미로 참여하였다. 촬영은 7일 오전11시부터 9일 저녁까지 하고, 11일 오후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촬영하였다. 조사자는 송정희, 이현정이다. 촬영장비는 비디오카메라 SONY HDR-PJ580을 사용하였고 마이크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표 1 심방 면담조사 일정

날짜	장소	면담자(심방)	성별/출생년도
20140922	고순안심방택	고순안 심방	여/1947년생
20140926	칠머리당굿보존회사무실	김윤수 심방	남/1946년생
20141001	강대원심방택	강대원 심방	남/1945년생
20141004	강대원심방택	강대원 심방	-
20141007	송영미씨택	고순안 심방	-
20141014	위암봉굿당	서순실 심방	여/1961년생

본 연구는 제주도 굿 제차(祭次) 중 하나의 제차만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제껏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로 하나의 제차를 세밀히 관찰하여 제주도 굿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제차 내용으로 본풀이가 어떻게 삽입되는지에 대하여 정밀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석살림의 개념

제주도 굿은 심방, 단골 또는 본주, 신격들이 만나서 종교적인 합일체를 이루는 종합적인 제전이다.¹⁵⁾ 물론 이것은 굿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제주도 굿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굿은 예술적 연행으로 총체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굿은 본주의 집안에 우환(憂患)이 있어 점(占)을 보고 그로 인하여 굿을 해야 된다는 점이 나오게 되면 날 보는 이(擇日師)를 찾아가 택일을 한다. 그리고 심방에게 굿을 의뢰한다. 본주는 굿 삼일 전부터 금기를 하고 제물 등을 준비한다. 심방은 굿이 시작되기 전날이나 당일에 기메를¹⁶⁾ 만들어 제장을 준비한다. 제상(祭床)을 준비하고 제물을 진설하고 각각 필요한 무구들을 준비하면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된다.

제주도 굿의 제차 순서는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초감제를 시작으로 초신맞이, 초상계, 추물공연, 석살림, 보세감상, 맞이굿, 본풀이, 놀이, 비념, 도진 등으로 이어진다.

현용준은 제차의 성격을 기본형식의례(基本形式儀禮), 영신의례(迎神儀禮), 신화의례(神話儀禮), 성극의례(聖劇儀禮)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기본형식의례는 초감제류와 도진 등이고, 영신의례는 맞이굿, 신화의례는 본풀이, 성극의례는 놀이를 말한다고 한다. 기본형식의례인 초감제는 청신(請神)+공연(供宴)+기원(祈願)+오신(娛神)으로 진행되고 맞이굿, 본풀이, 놀이 등을 연행하고 마지막에 가서 비념, 도진 등으로 송신(送神)을 한다. 굿의 기본적인 형식은 청신(請神)+공연(供宴)+기원(祈願)+오신(娛神)+(영신(迎神))+송신(送神)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굿을 큰굿, 작은굿, 비념 등으로 나누는데 작은굿인 경우에는 맞이굿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제주도 굿은 초감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 굿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15) 김현선,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30쪽.

16) 제주도 무속 의례에서 쓰이는 무구의 하나이다. 재료는 종이며 기메전지라고도 한다.

17)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246쪽-272쪽 참조.

[초감제] 제차를 좀더 살펴보면 그 순서가 다음과 같다.

- (1) 베포도업침 - 자연, 인문, 지리, 역사 등의 발생을 차례로 노래한다. 신들에게 굿을 하는 장소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 (2) 날과 국 섬김 - 굿을 장소의 지리적 설명을 하고 날짜를 노래한다.
- (3) 연유 닦음 - 굿을 하는 이유를 노래한다.
- (4) 군문 열림 - 신이 강림하기 위해 신역의 문을 여는 의례이다.
- (5) 산받아 분부사됨 - 신문(神門)을 연 후, 무구로 점을 보고 그 결과를 본주에게 전달한다. 본주가 원하는 다른 점도 봐서 신의 뜻을 본주에게 전달한다.
- (6) 새드림 - 제장, 신이 오는 길 등 장소를 정화하고 사(邪)를 쫓는 노래를 한다.
- (7) 신청례 - 신들을 청해 들이는 순서로 신의 위계에 따라 그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면서 청해 들어 제상(祭床)에 좌정하도록 한다.
- (8) 추물공연 - 제상(祭床)에 제물을 차례대로 열거하며 신에게 바치는 내용으로 노래를 한다.
- (9) 석살림 - 신에게 향과 술을 올리며 음악과 춤을 추며 신을 즐겁게 하는 의례이다.¹⁸⁾

(1)~(7)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굿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누가 굿을 하며 신들을 청한다’이다. 곧 청신의례(請神儀禮)이다. (8) 추물공연은 공연(供宴)에 해당하고, (9) 석살림은 오신의례(娛神儀禮)이다.

[초감제]는 굿 전체로 볼 때에 시작할 때도 하지만 맞이굿에도 [초감제]를 한다. 이렇듯 제주도 굿은 반복되는 제차들이 많다.

제주도 굿은 심방의 자세와 연관하여 ‘산굿’, ‘얏인굿’으로 나뉜다. ‘산굿’은 ‘선굿’이라는 뜻으로 심방이 서서 굿을 한다는 것이고, ‘얏인굿’은 ‘얏은굿’으로 심방이 앉아서 굿을 한다는 것이다. ‘산굿’은 심방이 굿을 서서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춤과 연물이 동반된다.¹⁹⁾

청신의례(請神儀禮)인 경우는 ‘산굿’과 ‘얏인굿’을 병행한다. 공연(供宴)인 경우는 ‘얏인굿’으로 연행된다. 오신의례(娛神儀禮)인 석살림은 ‘산굿’으로 연행된다.

이렇듯 [초감제]의 연행양상은 복합적이다. 이에 강정식은 「제주무가의 연행양상」에서 일반적으로 [초감제]는 ‘얏인굿’, ‘얏인굿+산굿’, ‘산굿’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얏인굿’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비념 형식의 의례에서 [초

18) 현용준, 위의 책, 262쪽-263쪽 참조.

19) 강정식,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민속연구』 제22집, 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민속학연구소, 2011, 264쪽 주석5 참조.

감제]이고 무가 중심이며 사실의 축약이 심하다고 하였다. ‘얏인긔+산긔’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례에서의 [초감제]이고 얏아서 하는 제차의 경우에는 무가 중심으로 길게 구연되고, 서서 하는 경우는 춤, 행위가 교체되며 무가가 길지 않다고 하였다. ‘산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맞이긔 [초감제]이며 모든 제차가 서서 진행하게 되어 얏아서 하던 소제차도 서서 하게 되니 구연 방식이 다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가의 사실 내용이 달라지고 제차의 구성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꼭 심방의 자세만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긔 현장의 환경이나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²⁰⁾

석살림 제차가 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사전』에서 석살림 제차를 큰긔 중심으로 차례대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 [초감제>젯드리 얏혀 살려움] 군웅일월조상신 대목에서

~강남 가민 천즈군웅 일본은 소즈군웅 우리나라 대홍대단하여 입던 황지군웅 이간주당 ××일월 (그 집안의 日月祖上)님도 살려옵서, 흑낙을 타며 살려옵서, 금바랑 소리로 살려옵서 [바라를 치면서] 옥바랑 소리로 살려옵서, 녁신뫼주 제왕제석 초감제 초석으로 일천간장 폴리명 살려오저 홉네다. 금바랑 옥바랑 그늘로 살려옵서. [樂. 바라춤 추다가 바라를 뒤로 던져 바라占 치고] 녁서로 다……[以下 군웅놀림함-석살림 pp90~95까지 하고 神房이 또 얏아서 장고 치며 唱]²¹⁾

(㉡) [석살림]

①날과 국 섬김 ②집안연유 닦음 ③시작말미 ④석을 켜 ⑤상축권상 삼주잔권잔 ⑥바랑담 ⑦덕담 ⑧군웅본판 ⑨조상본풀이 ⑩담불 ⑪서우젯소리 ⑫선양참봉본풀이 ⑬비뫼 ⑭산받고 분부사뫼 ⑮주잔뫼김 ⑯다음 제차로 뫼김²²⁾

(㉢) [불도맞이>메어들어 석살림]

[立巫가 살전지, 송낙대, 감상기를 들고 서서] 천양불도(天皇佛道) 할마님도 진(陣) 안으로 잉어 메살리자. 지왕(地皇)불도 할마님도 진 안으로 잉어 메살리자. 술전지 끈으로 잉어 메살리자. 송낙지 끈으로 잉어 메살리자. 나온 「선설」 「아뫼가이」 녹는 침방(寢房)으로 잉어 메살리자. [담불(p.92 담불 참조) 소리 노래하며 할망드리 (産神 下降路인 긴 무뫼)을 당기어 방으로 들어감] 신정국도

20) 강정식, 위의 책, 268쪽.

21) 현용준, 『사전』, 67쪽.

22) 현용준, 『사전』, 88쪽-95쪽 제차만 정리함.

내울리자. [약기 일제히 울림][立巫 술전지, 송낙대, 감상기를 벽장의 상위에 올려 두고] 할마님을 진(陣) 안으로 잉어 메살렸더니 훗일곱자(單七尺) 걸랫배 송낙도 벗어당 할마님에 우울리자. [걸랫배와 고깔을 벗어 쟁상 위에 올리고] 송낙 벗어 우울리고 장삼(長衫) 벗어 우울렸더니 우(位)가 돌아갑네다. 녁신뫼주 일월조상(日月祖上)에 삼셔냥(三仙香)도 지부찌자. **[香燭勸上함. 이하 석살림 p.88 10행에서부터 p.95끝까지 같음]**²³⁾

(ㄱ) [일월맞이]>메어들어 석살림]

[담불소리 부르며 메어들어 석살림함(석살림 pp.88~95참조)]²⁴⁾

(ㄴ) [초공맞이]>메어들어 석살림]

연줄도 걸자. 신줄도 걸자. 연줄 신줄 걸어당 신의아이 양단독지(兩端肩) 감아맞고 절아맞아 초공님을 진(陣) 안으로 메살리자. [전악기 올리고 신드리(무명)를 어깨에 매어 도랑춤(亂廻舞) 추며 방안으로 들어와서 배풀이 한다. 즉] 요 뱀 보난 옛날 옛적 팔즈(八字) 굿고 스주(四柱) 굿던 옛 선성(先生)덜이 메단 배로구나. 감아맞고 절아맞자. 나온 「뭇살 아무개」 신의아이(神房)가 감아맞고 절아맞았수다. [아는 무당의 영혼을 아무아무 선생이라 부르며]××선성메단 배로구나. 감아맞고 절아맞자. [무명을 팔에 감아다가] 당(堂)의 당배는 당(堂)으로 강 풀곡 절(寺)의 절배는 절(寺)로 강 풀곡 신(神)의 신배는 신공시로 가 풀자. [무명을 공깃상에 가 풀어 올리고] 아끈가미 한가미도 감아맞자. [이하 도지마을 굿(보세감장 p.100 참조)해서 도지마을을 풀어다 전제석궁 당클에 올려두고] 위(位)가 돌아갑네다. 좌(座)가 돌아갑네다. 이간주당(此家內住堂) 제왕제석(帝王帝釋) 녁신뫼주 「무슨 조상」에 위(位) 돌아갑네다. 삼스냥(三仙香) 지부찌며 굴송낙 굴장삼(長衫) 금바랑 옥(玉)바랑도 타레 들자. **[이하 석살림 p.89부터 끝까지 거의 같게 함]**²⁵⁾

(ㄷ) [이공맞이]>이공질 침>석살림]

전상머리 내놀리난 고리동반신동벽은 삼천진저석궁으로 우울리고 위(位)가 돌아갑네다. 좌(座)가 돌아갑네다. 군농일월제석(軍雄日月帝釋)으로 삼스냥(三仙香) 우울려 지부찌자. **[이하 석살림 p.89 부터 끝(p.99)까지 같음]**²⁶⁾

(ㄹ) [시왕맞이]>시왕 도올리고 석살림]

[시왕맞이]>메어듬>배풀이 하고 석살림]

[초공맞이 pp.181~182 참조. 이 때 마당의 시왕상을 칠상하고 각 당클에 제물을 새로 갈라 올림]²⁷⁾

23) 현용준, 『사전』, 139쪽.

24) 현용준, 『사전』, 141쪽.

25) 현용준, 『사전』, 181쪽-182쪽.

26) 현용준, 『사전』, 190쪽-191쪽.

우선 제차 구조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제차로 존재하는 (ㄴ) [석살림] 제차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지만 소제차들이 모두 대등한 관계로 되어 있어 제차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관련 있는 소제차들을 묶어보면 ①날과 국 섬김과 ②집안연유 닦음 이후에 연물과 춤으로 이루어진 신을 매어 들이는 제차로 ③시작말미에서부터 ④석을 켜 ⑤상촉권상 삼주잔권잔 ⑥바랑탐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리고 연물, 춤, 소리로 된 제차인 ⑦덕담 ⑧군웅본관 ⑨조상본풀이 ⑩담불 ⑪서우젯소리 ⑫선양참봉본풀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⑬비념 ⑭산받고 분부사뵈 ⑮주잔넘김 ⑯다음 제차로 넘김은 기본적으로 굿 마무리 부분에 연행하는 동일한 소제차들이다.

따라서 위의 제차를 다시 재정리를 하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날과 국 섬김

②집안연유 닦음

③신메움

시작말미 / 석을 켜 / 상촉권상 삼주잔권잔 / 바랑탐

④놀판

덕담소리 > 군웅본관 > 조상본풀이

담불소리 (조상신본풀이 내용)

서우젯소리 > 선양참봉본풀이

⑤비념

⑥산받고 분부사뵈

⑦주잔넘김

⑧다음 제차로 넘김²⁸⁾

[시작말미/석을 켜/상촉권상 삼주잔권잔/바랑탐]을 ③신메움으로 묶은 이유는 [시작말미] 제차 내용이 “팔천신전(八千神前)어간 뵈네다. 석시로 신뵈저 홉네다”로 말명이 시작하고 [석을 켜]에서도 “신마다 각각 석시로 신을 메와 드립네다”로 말명이 끝이 난다. [상촉권상 삼주잔권잔], [바랑탐]도 내용을 보면 신메움 제

27) 현용준, 『사전』, 314쪽.

28) 강정식, 『제주굿의 이해(1) 제차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강독』, 제주학연구소, 2014, 프린트, 91쪽.

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제차를 행위에 따라 소제차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바랑탐] 이후 심방이 바라점, 신칼점을 보고 재배(再拜)를 하면 소제차가 마무리가 된다.

[덕담>군웅본관>조상본풀이 / 담불(조상신본풀이 내용) / 서우젯소리>선양참봉본풀이]를 ④놀판으로 묶은 이유는 제차 말명에 “풀려놔서”, “놀고가자” 등 말명이 있고, 실제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놀기 때문이다.

[상촉권상 삼주잔권잔] 제차는 말명을 하고 향로를 들고 춤을 추다가 주잔을 들고 땃잎으로 잔에 있는 술을 적서 뿌리며 춤을 춘다. 다시 향로를 들고 춤을 춘다. 이에 연물이 동반되며 장단은 보통 중판과 중판감장이다.²⁹⁾

[바랑탐]인 경우에는 심방이 송낙(고깔)을 쓰고 장삼(군웅치마)을 한쪽 어깨에 걸쳐 입고 바라를 들고 춤을 추다가 수록침을 한다. 이후 바라점, 신칼점을 보고 절을 한다. 이때도 역시 연물이 동반되는데 감장중판을 치다가 수록장단을³⁰⁾ 친다. 이때 심방도 바라로³¹⁾ 같이 수록장단을 친다.

④놀판인 경우에는 심방과 소미(小巫)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놀판을 할 것을 예고한다. 이를 “수작을 부린다”라고도 하는데, 성극의례(聖劇儀禮)와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극에서 대사를 주고받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연물이 장구와 북만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 장구만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북만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곳 현장 상황 때문이다. 소미(小巫)가 많은 경우는 둘 다 연주하는 경우

29) 연물장단은 세 가지로 나눈다. 늦인석, 중판, 좃인석이다. 4박을 기준으로 하며 빠르기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각각의 장단에 다시 세부적으로 빠르기를 나눠 늦인늦인석, 늦인석, 좃인늦인석으로 나눈다. 중판, 좃인석도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늦인중판, 중판, 좃인중판으로 나눈다. 이러한 이유는 장단이 연주되어가면서 점점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심방들은 장단을 올린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도랑춤(亂廻舞)을 출 때는 감장이라는 장단이 쓰이는데 각각의 장단에 감장이라는 이름을 뒤에 붙여 사용한다. 늦인석감장, 중판감장, 좃인석감장 등이다. 감장 장단은 4박이 중심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가락이 단순화 된다. ‘도랑춤’을 ‘감장 돌기’라고도 한다.

30) 수록장단은 “당 당 당당당”를 반복한다. 다른 가락은 없고 연물악기들이 모두 동일하게 친다. 기원(祈願)을 할 때 쓰이는 장단이다. [불도맞이], [이공맞이], [식살림] 등의 제차에서 보인다.

31) 바라는 국악기 중, 타악기의 하나로 늦쇠로 만들어진 것이다. 접시처럼 둥글넓적하고 얇게 만든 것으로 두 짝을 서로 마주쳐서 소리를 낸다. 크기는 다양하다. 손가락에 끼워서 치는 아주 작은 크기의 향발(響鉢)이라는 것도 있다. 제주 무악기로 바라는 크기가 작은 편이다. 제주어로 ‘바랑’이라고 한다.

가 많다. 하지만 소미가 불 일이 있어 자리를 뜨게 되거나, 소미가 적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연주하게 된다. 소리는 심방이 하다가 본주가 할 수도 있고, 신앙민이 할 수도 있고, 소미가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다른 제차에 비해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내용은 균옹본풀이, 조상신본풀이, 선양참봉본풀이 등이다.

그런데 석살림이 위와 같이 독립된 제차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㉑)처럼 독립된 제차에 앞서서 석살림이 연행되기도 한다.

(㉑)은 [초감제]에서 신을 청하는 제차인 신청래의 제차인 [젯드리 앓혀 살려움]에서 신의 위계에 따라 신을 일일이 거명하며 청한다. 균옹일월조상신 대목에서 연행되는 석살림 제차이다. 소제차를 자세히 보면 ③신메움에서 바랑탐과 ④놀판으로 균옹본판과 조상신본풀이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감제 소제차인 [젯드리 앓혀 살려움]에서의 석살림 제차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③신메움
- 바랑탐
- ④놀판



턱담소리 > 균옹본판 > 조상본풀이

맞이곳의 경우는 [메어들어 석살림]이란 제차명으로 연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사가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통 [석살림] 몇 쪽에서 몇 쪽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차 구성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㉒), (㉓), (㉔), (㉕), (㉖)은 동일하게 맞이곳 마지막 제차로 연행되었다. 그 제차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③신메움
- 상촉권상 삼주잔권잔 / 바랑탐
- ④놀판

턱담소리 > 균옹본판 > 조상본풀이

담불소리 (조상신본풀이 내용)

서우젯소리 > 선양참봉본풀이

⑤비넘

⑥산만고 분부사뤼

⑦주잔넘김

⑧다음 제차로 넘김

즉 맞이굿 마지막 제차로 연행되어진 [석살림]은 동일하게 ①날과 국 섬김 ② 집안연유 닙음의 제차가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ㄷ) [불도맞이>메어들어 석살림]은 네공전할마님과 군웅일월을 위한 것이다. 네공전할마님을 먼저 ‘담불소리’로 매어들며 놀린 뒤 [석살림>놀판]을 다시 하였다. ‘담불소리’가 메어듬 대목에서 먼저 구연되는 것이 특징이다. 메어듬과 석살림은 별도의 제차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의 제차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²⁾

(ㄹ) [초공맞이>메어들어 석살림]메어듬 대목에서 무명천을 어깨에 매어 도랑춤 (亂廻舞)을 추며 배풀이를 하고 나서 도지마을굿을 하고 석살림을 한다.

(ㄴ) [이공맞이>이공질 침>석살림]메어듬 대목에서 무명천을 어깨에 매고 방울떡을 머리에 이고 ‘느나니소리’에 맞추어 춤추며 방안으로 메어든다. ‘느나니소리’를 구연하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³³⁾

(ㄷ) [시왕맞이]에서는 두 번의 석살림 제차가 있다.

(1)초감제, (2)방광침, (3)체스본풀이, (4)시왕 도올리고 석살림/도올림/상촉권상/역갈올림/산받아 분부사뤼/상단속여 소지사름, (5)액막이, (6)나까도전 침, (7)삼천군병질 침, (8)질침, (9)메어듬 - 시왕질 침/메어듬/정대우함/배풀이하고 석살림³⁴⁾

(4)에서 상촉권상에 “[석살림 pp.88~89 참조]”라고³⁵⁾ 설명이 되어있고, (9)에서는 “[초공맞이 pp.181~182 참조. 이 때 마당의 시왕상을 철상하고 각 당클에 제

32) 강정식, 『제주굿의 이해(1) 제차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강독』, 제주학연구소, 2014, 프린트, 111쪽.

33) 메어듬 이후에 [아공이전상법(굿)함]을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강정식은 『제주굿의 이해(1) 제차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강독』에서 심방들은 이공맞이와 아공이전상법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가 있다. 위의 책, 134쪽, 주석 94 참조.

34) 현용준, 『사전』, 206쪽-314쪽. 제차만 정리함.

35) 현용준, 『사전』, 275쪽.

물을 새로 갈라 올림]”이라고³⁶⁾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상측권상에 대한 제차만 참조하라는 것이다. (9)의 경우는 배풀이하고 석살림 말명이 [초공맞이>메어들어 석살림] 말명을 참조하고 그 이후 석살림 제차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③신메움에서 배풀이/바랑탐 ④놀판 ⑤비념 ⑥산받고 분부사됨 ⑦주잔넘김 ⑧다음 제차로 넘김을 했다는 것이다.³⁷⁾

작은굿·비념인 경우 [성주풀이]에서는 (1)초감제>베포도업침/날과 국섬김/연유닭음/오리정신청계/추물공연/석살림/성주눅임/강태공청함/췌띠움/지부짚, (2)바라점하고 분부사됨>성주풀이/상단숙임/문전본풀이/각도비념/도진으로 제차가 이루어져 있다. (1)초감제에 독립된 제차로 석살림이 존재하며, (2)바라점하고 분부사됨에서 성주풀이 제차가 “[석살림과 같이 상측권상하고 삼주잔권잔 한 후 덕담 할 때(석살림 pp.88~90 참조) 북, 장고 치며 창]”이라고³⁸⁾ 설명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①날과 국 섬김 ②집안연유 닭음 ③신메움>시작말미/상측권상 삼주잔권잔/바랑탐 ④놀판>덕담소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덕담소리로 군웅본판 대신 성주풀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다.

[칠성새남]에서는 초감제-초상계-일월맞이-초공본풀이-초공맞이-초곶메김-산받아 분부사됨-푸다시 함-메어들어 석살림-이공맞이-시왕맞이-삼대김-시왕질쳐서 메어듬-본향드리-칠성본풀이-각도비념-도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어들어 석살림]제차가 있고 초공맞이를 참조하라고³⁹⁾ 되어 있다. 메어들어 석살림 말명 이후 ③신메움에서 바랑탐 ④놀판 ⑤비념 ⑥산받고 분부사됨 ⑦주잔넘김 ⑧다음 제차로 넘김을 하였다는 것이다.

[멩감]에서는 공선가선-날과 국섬김-집안연유 닭음-군문열림-정테우-산받아 분부사됨-추물공연-세경본풀이-군웅놀림-상단숙임-소지사름-문전액막음-각도비

36) 현용준, 『사전』, 314쪽.

37) [시왕맞이]에서 맞이굿 마지막 제차로 메어들어 석살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시왕맞이]부터 신이 늑어간다고 하여 신을 놀리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심방택 굿인 경우에 안시왕, 밧시왕으로 시왕맞이를 두 번하기 때문에 메어들어 석살림을 한다고 한다. 이 경우는 심방택 굿인 경우로 보인다. 심방택인 경우에 석살림을 당주연맞이 전까지 한다고 한다. 김윤수 심방, 강대원 심방, 고순안 심방, 서순실 심방 모두 동일하게 제보하였다.

38) 현용준, 『사전』, 466쪽.

39) 현용준, 『사전』, 496쪽.

넘-도진으로 이루어져 있고 군용놀림 제차에서 “[일월조상이 있는 경우에 함. 석살림 pp.88~95 참조]”라고⁴⁰⁾ 설명하고 있다. ①날과 국 섬김 ②집안연유 닦음 ③신메움 ④놀판 ⑤비넘 ⑥산받고 분부사됨 ⑦주잔넘김 ⑧다음 제차로 넘김을 하였다는 것이다.

[두린긋]은 [두린긋>춤취움] 제차에서 “[<석살림>의 덕담, 또는 서우젯소리 장단에 맞추어 환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환자가 하늘, 땅 모르게 춤을 추다가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 들어앉고 병의한 귀신이 누구이로다라고 자백하면]”이라고⁴¹⁾ 기록된 것을 보면 [두린긋]에서 덕담, 서우젯소리가 불리지는 것은 석살림이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영감놀이]에서 놀판인 서우젯소리가 불렸으나 석살림이라는 제차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무영청대전상]에서는 이후 ‘시왕맞이와 똑같음’이라고 설명이 되어있다. 석살림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어 정확히 연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귀양풀이], [문전비넘], [철갈이(벨롱갱이)]⁴²⁾, [칠성제], [불뚝제], [할망비넘], [마누라배송], [구삼싱 냄], [너들임], [불찍긋]에서는 석살림 제차가 없다. [푸다시]에서는 정확히 석살림 제차가 언급된 것은 없다.

제차 구성방식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가 된다.

- (1) 초감제의 신청괘에서 군용일월을 청하여 놀릴 때 벌임
- (2) 초감제와 맞이긋 사이에서 독립제차로 벌임
- (3) 맞이긋의 마지막 제차로 벌임⁴³⁾

(1)인 경우 [초감제>젯드리 앓혀 살려움]에 있는 석살림을 말하는 것이다. 초신

40) 현용준, 『사건』, 502쪽.

41) 현용준, 『사건』, 522쪽.

42) 심방 면담에서는 [철갈이] 경우에도 석살림을 하였다고 한다. 말명으로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놀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김운수 심방, 서순실 심방, 고순안 심방 모두 동일하게 제보하였다.

43) 강정식, 『제주긋의 이해(1) 제차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강독』, 제주학연구소, 2014, 프린트, 87쪽-88쪽.

맞이, 초상계, 젓상계, 제오상계 등에서도 동일한 신청계 제차에서 할 수 있으며,⁴⁴⁾ [맞이굿>초감제>신청계] 동일한 대목에서도 할 수 있다. 제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③신메움

시작말미 / 석을 켜 / 상축권상 삼주잔권잔 / 바랑탐

④놀판

덕담소리 > 균옹본판 > 조상본풀이

담불소리 (조상신본풀이 내용)

서우젓소리 > 선양참봉본풀이

위의 제차 구성을 살펴보면 ①날과 국 섬김 ②집안연유 닙음 ⑤비념 ⑥산받고 분부사뵈 ⑦주잔넙김 ⑧다음 제차로 넘김 제차가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차 속 소재차로 존재하므로 생긴 현상이다.

강정식은 이런 제차를 알리기, 빼기와 같이 설명한 바가 있다. 상황에 따른 연행방식으로 굿 전체적인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고 하였다.⁴⁵⁾ 젓드리 얹혀 살려움 제차에 석살림 제차가 열려져 있으므로⁴⁶⁾ 석살림 제차에서 ①, ②, ⑤, ⑥, ⑦, ⑧번의 제차가 빠지게 된 것이다.

(2)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 연이어 여러 번 연행할 수도 있다. 제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날과 국 섬김

②집안연유 닙음

③신메움

시작말미 / 석을 켜 / 상축권상 삼주잔권잔 / 바랑탐

44) 고순안심방, 김윤수심방, 강대원심방, 서순실심방 모두 동일하게 제보하였다.

45) 강정식,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민속연구』 제22집, 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민속학연구소, 2011, 273쪽.

46) 2014년 10월 4일 면담에서 강대원 심방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을 청하는 과정에서 석살림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신을 모셔 드려 제상(祭床)에 앉히지도 않고 특정한 신에 한해서만 석살림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④놀판

턱답소리 > 군웅본편 > 조상본풀이

담불소리 (조상신본풀이 내용)

서우젯소리 > 선양참봉본풀이

⑤비넘

⑥산만고 분부사뤼

⑦주잔넘김

⑧다음 제차로 넘김

석살림 제차 구성이 온전히 존재하므로 석살림 제차 연구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인 경우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등의 [매어들어 석살림] 제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③신메움

시작말미 / 석을 켜 / 상촉권상 삼주잔권잔 / 바랑탐

④놀판

턱답소리 > 군웅본편 > 조상본풀이

담불소리 (조상신본풀이 내용)

서우젯소리 > 선양참봉본풀이

⑤비넘

⑥산만고 분부사뤼

⑦주잔넘김

⑧다음 제차로 넘김

위 세 가지 방식의 제차 구성의 공통점은 ③신메움과 ④놀판이다. 신메움이나 놀판의 소제차가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제차가 공통분모인 것은 사실이다. 석살림 제차가 본격적으로 연행되는 부분은 신메움 제차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메움>바랑탐]인 경우는 군웅신을 매어드는 제차이고, 다른 경우는 맞이곳 마지막으로 연행하는 경우에 [맞이곳>매어들어 석살림]에서 매어둠 제차가 맞이곳의 신을 매어들기 때문이다.

『사전』에서 큰곳이든 작은곳이든 석살림 제차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곳 현장에서는 연행되어질 수 있다.

다음은 『사전』에서 큰곳 제차를 중심으로 석살림이 기록된 위치와 석살림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연행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⁴⁷⁾

표 2 큰곳에서 석살림 제차 위치

제차명	소제차명	석살림
1.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1) 초감제>신청케>석살림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담음	
	군문열림	
	새드림	
	오리정·갯드리얹혀 살려움·정테우	
	산받아 분부사됨	
2. 초신맛이	다음제차로 넘김	(1) 초감제>신청케>석살림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담음	
	군문열림	
	새드림	
	신청케 (분향틀)	
3. 초상제	다음제차로 넘김	(1) 초감제>신청케>석살림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담음	
	군문열림	
	새드림	
4. 추불공연	신청케	(1) 초감제>신청케>석살림
	다음제차로 넘김	
5. 석살림	다음제차로 넘김	(2) 독립된 제차로 석살림 이어서 여러 번 할 수 있음.
	날과 국 섬김	
	집안연유 담음	
	신매움	
	놀판	
	비넘	
	산받고 분부사됨	
	주잔넘김	
다음 제차로 넘김		
6. 보세감상		
7. 관세우		
8. 불도맛이	초감제	(1) 초감제>신청케>석살림 (2) 독립된 제차로 석살림 (3) 맛이곳>석살림(상단숙여 소지사름>메어들어 석살림)
	추불공연	
	수룩침	
	할망다리 추김	
	할망질침	
	수레멜망악심질침	
상단숙여 소지사름		
9. 일월맛이	초감제	(1) 초감제>신청케>석살림 (2) 독립된 제차로 석살림
	추불공연	

47) 표 2의 큰곳 소제차들은 성격에 맞게 재정리하였다. 맛이곳 초감제는 1. 초감제 제차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석살림 제차가 연행될 가능성이 없는 제차는 정리하지 않았다.

	수륙침	(3) 맞이굿>석살림(상단숙여 소지사름>메어들어 석살림)
	상단숙여 소지사름	
10. 초공본풀이		
11. 초공맞이	초감제	(1) 초감제>신청제>석살림
	추물공연	(2) 독립된 제차로 석살림
	초공질침	(3) 맞이굿>석살림(상단숙여 소지사름>메어들어 석살림)
	상단숙여 소지사름	
12. 이공본풀이		
13. 이공맞이	초감제	(1) 초감제>신청제>석살림
	추물공연	(2) 독립된 제차로 석살림
	이공질침	(3) 맞이굿>석살림(상단숙여 소지사름>메어들어 석살림)
	상단숙여 소지사름	
	아공이전상법 (굿) 합석살림	
14. 삼공본풀이		
15. 갯상제	초상제와 동일	(1) 초감제>신청제>석살림
16. 시왕맞이	초감제	(1) 초감제>신청제>석살림 (2) 독립된 제차로 석살림 (3) 맞이굿>석살림(메어듬>배풀이 하고 석살림)
	방광침	
	추물공연	
	이방광쳐서 지옥을 새내움	
	추물공연	
	막방광쳐서 새내움	
	추물공연	
	체스본풀이	
	시왕 도울리고 석살림(신매움)	
	상단숙여 소지사름	
	액막이 (사만이본풀이)	
	나까도전 침 (지장본풀이)	
	삼천군병질침(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질침(무른질침)		
메어듬		
17. 세경본풀이		
18. 요왕맞이	초감제	* 시왕맞이와 동일한 위치에 석살림이 연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요왕질침	
	溺死者 撫魂 때에는	
	초매장함	
	쉐떡춤	
	방광침	
	영가루침	
마른질침		
19. 제오상제	초상제와 동일	(1) 초감제>신청제>석살림
20. 삼공맞이		
21. 양국숙입		
22. 세경놀이		
23. 문진본풀이		
24. 본향드리		
25. 각도비념		
26. 영계 돌려세움		
27. 균용만판		놀판
28. 불놀이		
29. 도진		
30. 가수리		
31. 뒤맞이		

■ 기록이 된 경우 ☒ 기록은 없지만 연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록된 것으로 볼 때 (1)의 경우가 1회, (2)의 경우가 1회, (3)의 경우가 6회이다. 하지만 연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1)의 경우가 10회, (2)의 경우가 6회, (3)의 경우가 5회로 (2)의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1회 이상 석살림을 연행할 수 있다. 물론 실제 곳에서 이렇게 많이 석살림을 연행하지는 않는다.

석살림에서 어느 신을 놀리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④놀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집안 혹은 씨족 수호신을 놀린다.

집안 혹은 씨족 수호신이란 ‘일월’, ‘조상’, ‘일월조상’, ‘군웅’ 등의 신들을 말한다. 특정한 집안에 오랫동안 모셔져 내려오면서 그 집안을 수호해 주는 신이다. 이 신은 당신(堂神)과 동일한 경우도 있다. 당신(堂神)과 동일한 경우를 빼고는 이 신을 모시는 장소는 없다. 간혹 집안에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⁴⁸⁾

군웅신은 서울, 경기, 황해도, 동해안, 제주도 등지의 곳에서 나타난다.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군웅이 있다. 군웅신은 무속의 장군신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생존하는 어떤 장군의 구체적인 인물이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장수(將帥)의 모습이다. 그 역할은 액(厄)과 살(煞)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군웅신이 조상과 관련지어 집안 내지 씨족을 수호해 주는 신으로 인식한다.⁴⁹⁾ 제주도인 경우에는 군웅본풀이가 있다.

김헌선은 『高麗史』에 있는 작제건(作帝健)이야기가 군웅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그 역사적 성격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작제건이야기는 조상신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에 조상신 가운데 으뜸신을 군웅으로 잡고 있으니 이들은 모두 고려시대 이래로 조상의 성립을 삼고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⁰⁾

48)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149쪽.

49)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9, 92쪽-93쪽.

50) 김헌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229쪽-232쪽.

군농본푸리(軍雄本解)⁵¹⁾

군농하리방은청황재석이요

군농할당은지왕재석

군농아방은왕대조왕장군

군농어당은회속에낭

큰아달은왕근,둘재아달은왕빈

꽃해아달은왕사랑이외다

군농아방왕장군의환부로살며

남무를비여서팔고사는데

하로는초립동이와서말하기를 (주 : 초립(草笠)은 나이가 어린 사내로서 관례한 사람이 쓰던 누른 빛깔의 짝 가는 풀로
걸어 만든 것의 한 가지. 초립동이는 초립을 쓴 나이가 어린 사내를 말한다.)

나는동해용왕이야달이라

동해용왕하고서해용왕이싸움을하는데

우리나라의메양싸움에말이니

장군을칭하래왔습니다

왕장군의나는세상에무서운것이업되

바다물이무서우다,엇지하면가리요

저하고갓치가면되오리다하고

왕장군을업어서물속으로드러가니

바다물에길이나서,용왕의드러가다

동에용왕이깁버하야말하기를

내일은서해용왕하고싸움을하리니

그때에나는집것지느모양을하고

물속으로드러가면

서해용왕이물우에서승세를하리니

그때란살노쏘와죽이라약속하고

뒤틀날은집전의이러나서

동해용왕의말일때에물속으로드러가부니

서해용왕의물우에서승세할때,살노죽여노니

동해용왕이나오서크게깁버하야

너를무엇을상을주리요하니

초립동이용왕이야달이

51) 秋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329쪽-331쪽. 주석까지 그대로 옮겼다.

장군보고가만히하는말이
 아무것도실타하야,연갑을달나고합소서
 그러면연갑속엔저의누이가잇는데
 만사가편하오리다하니
 왕장군의지원을말하니
 할수업시연갑을내여주니
 인간에가지고오니,밤이들면연갑속으로
 월선여갓흔미인이나와서갓치배필을뚝고
 이복과음식을원대로갓다가되리고살때
 삼년이되난아달을나안는데
 일놈은왕근이,둘재아달은나나왕빈이
 셋재아달은나난왕사랑이라일놈을깃고
 크게부재로살때,용왕딸이하는말이
 당신내는지금부터부하개살이라하고
 나는인간이아니니
 지금부터용왕으로드러가리니
 당신들은군농을차지하여사읍소서
 강남은천자군농으로살고
 일본은효자군농으로놀고
 조선은역신군농으로놀고
 금주자랑,병주자랑,호주자랑
 어영대감,삼정신,육판사,팔도도감,십대신
 각읍수령양반집인사당우판에놀고
 중인이집에는걸영수낙 (주: 걸영수낙은 확실하지 않지만, 걸령수락(靈受樂)일지도 모른다.)
 영판척불일월에놀고
 무당집에는당주읍판고비살장에놀고
 배짓는집인선왕일월에놀고
 산양하는집인산신일월에놀고
 장사하는집인넉배일월에놀고 (주: 넉배는 불명, 임시로 혼패(魂牌)로 하였다.)
 활하는집에는첫달사리흔보일월에 (주: 사리는 살림이라는 뜻이 아닐까?)
 어수예비수예어인타인금인오인 (주: 어수예(御賜花)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종이로 만든 조화(造化)로 줄여서 사회(賜花)라 한다. 어인(御印)은 왕의 도장. 타인(打印)은 관인(官印)을 찍는 것. 답인(踏印)이라고도 한다. <비수예>는 왕비가 하사한 조화가 아닐는지?
 창보쌍지홍보쌍지모대각대에놓내다 (주: 과거에 급제한 자의 복장을 말한다.)



군웅본풀이는 덕담소리에서 구연된다. 그래서 덕담소리를 군웅덕담이라고도 한

다. 덕담소리는 “오늘 오늘 오늘이여~” 시작하여 배포도엮침, 날과 국 섬김, 연유담음의 내용이 들어가고 나서 군웅일월 내용이 들어간다.⁵²⁾ 그 이후 군웅본판으로 본격적으로 군웅본풀이가 구연된다. 여기서부터는 덕담소리에 얹어서 구연하기도 하고 본풀이 말미 장단으로 구연되기도 한다.

군웅본풀이는 [군웅만판] 제차에서도 구연된다. [군웅만판]에서는 군웅본풀이와 더불어 조상신본풀이도 구연된다. [군웅만판]은 석살림과 동일한 제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석살림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내용을 유심히 보면 “제왕제석 녀신몸주님이 돌아사쟁 흐는디 마부(馬夫)야, 말테령(馬待令)흐라.”라고 말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신을 메어드는 제차가 아니고 신을 떠나보내는 제차이다. “각서추물(各色出物) 그만 먹으난 먹기도 싫다. (중략) 돌아사는 일월조상(日月祖上)이랑 신정국태추태로 풀령갑서, 각서추물(各色出物) 반양 갑서.”라고 말명을 하고 제물을 조금씩 끊어 문전 밖으로 던진다.⁵³⁾

군웅만판 제차는 추물공연 제차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공연에서 열거하였던 음식이 이제 굶이 끝나자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하며 굶판을 떠날 것을 예고하는 제차이다. 그런데 여기 “막석풀이”라는 말에서의 ‘석’을 곧바로 석살림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은 제차,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막석풀이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제차로, 만판으로, 마지막으로 결판지게 놓고 가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여기 군웅신을 위세하면 노는가가 문제이다. 신들이 돌아가기 위해 말을 타고 가기 때문에 군사들을 연상하게 하는 신인 군웅신을 놀리는 것이라고 심방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⁵⁴⁾ 군웅신으로 놓고 가자고 하니 석살림과 동일한 놀판 제차로 군웅만판 제차가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제차의 이름은 ‘만판’이라고 해야 옳다. 조상신본풀이와 선왕참봉본풀이도 구연된다.

김현선은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에서 조상신본풀이는 집안에 수호신으로 자리 잡은 조상신의 내력을 다루는 것이고 그 집안에 한정되는 사건이나 내용을 주소재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호신과 그 집안에 인연을 맺은 인물과의

52) 현용준, 『사건』, 91쪽.

53) 현용준, 『사건』, 435쪽-436쪽.

54) 2014년 10월 14일 서순실 심방 면담내용.

관계 양상은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거나 제주도 사람이 육지 사람과 오고가는 인연을 맺는 내용을 주로 거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상신본풀이의 주요 내용이자 핵심이 된다고 하였다.⁵⁵⁾ 『사전』에서는 조상신본풀이가 총 15편이 수록되어있다. 그 외에도 비교적 많이 채록되어있다.⁵⁶⁾ 그러나 현장에서 채록된 자료가 많지 않다. 궂 현장조사가 어려운 점과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선왕참봉본풀이는 영감본풀이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다.⁵⁷⁾ 영감본풀이는 영감놀이에서 구연되는 본풀이이다. 영감은 도깨비신이며 이 신이 범접하게 되면 병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병을 일으키는 신만은 아니다. 어선을 새로 지어 ‘선왕’을 모실 경우나 부락신에 대한 당굿으로서도 영감신을 청하여 영감놀이를 한다.⁵⁸⁾

다음은 석살림의 전승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5)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17쪽-18쪽.

56)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12편.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8. 1편.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9. 6편.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10. 4편.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13. 14편.

57) 현용준, 『사전』, 95쪽.

58)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236쪽.

Ⅲ. 석살림의 전승양상

1. 제차 구성에서의 전승양상

석살림의 전승양상은 개인신앙과 공동체신앙으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개인신앙과 공동체신앙은 굿을 하는 이유가 다르고 그 제차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굿의 성격에 따라 석살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1) 개인신앙의 전승양상

(1)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⁵⁹⁾

이 굿은 시왕맞이 굿이지만 본주가 그 동안 여러 차례 굿을 하면서 질침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질침은 생략하고, 대신 본주의 조상신인 광청할망의 본풀이를 집중적으로 풀었다. 이 굿은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는 굿이면서 광청할망본풀이를 주로 하여 조상신을 놀리는 굿이다. 특기할 만 한 점은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고향마을에 4·3 당시 희생된 동북리 영혼상(136신위)을 별도로 차려 모두 함께 청하여 위로하였다는 것이다.⁶⁰⁾

이 굿에서는 석살림이 총 6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석살림 제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감제>젯드리 앓혀 살려움]⁶¹⁾

심방이 퀘지외⁶²⁾ 이명걸이⁶³⁾ 차림으로 신자리에⁶⁴⁾ 앉아서 장구를 치며 [초감

59) 『동북 시왕맞이』는 2006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벌어진 굿이다. 수심방은 서순실 심방으로 하여 이중춘, 고복자, 강순선, 조정에 심방이 소미로 참여하였다.

60) 강정식 외, 『동북 시왕맞이』, 17쪽-30쪽 참조.

61) 강정식 외, 『동북 시왕맞이』, 114쪽~123쪽.

62) 퀘지는 심방 복색 중 쾌자(快子)를 말한다. 보통 파란색이다.

제>젯드리 얹혀 살려움] 제차 말명을 하다 군웅신과 조상신 대목에서 석살림 제차를 한 경우이다.

초감제>젯드리 얹혀 살려움>군웅일월 들

석살림

- 석시말미
- 놀판
 - 떡담소리 / 서우젯소리
- 푸다시
- 주잔넘김

[초감제>젯드리 얹혀 살려움>군웅일월 들]에서 심방이 일어서서 바람, 물색, 요령을 들고 춤을 춘다. 연물장단은 좃인중판, 좃인석, 좃인석감장 순으로 이어진다. [석살림>놀판]에서는 떡담소리, 서우젯소리, 푸다시가 이어지고 내용은 군웅 본풀이와 선왕, 영감, 광청할망본풀이를 구연하였다. 말미장단에 맞춰 본풀이를 구연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리 가사에 본풀이 내용을 엮어 구연한 것이다. 심방이 떡담소리를 하며 신자리를 서성이다가 간혹 춤을 추기도 한다. 노래를 하는 동안 소미들은 ‘좋다’는 추임새를 덧붙이며 분위기를 만든다. 소미가 본주 앞에 가서 춤을 추며 본주가 춤추기를 권한다. 본주가 소미에 이끌려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하니 본주 가족들이 하나둘씩 나와 춤을 춘다. 서우젯소리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서우젯소리는 서우젯소리와 좃인 서우젯소리로 나뉘어 불렀다. 좃인 서우젯소리에서는 심방이 삼색물색을 들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하다 본주에게 가 본주의 머리 위에서 삼색물색을 넘기다가 머리와 몸을 쓰다듬는 행위를 반복한다. 그리고 나서 삼색물색을 문전 밖으로 던진다. 이후 [푸다시]가 이어지고, 주잔넘김을 하고 모두들 자리로 돌아가면 심방은 다시 신자리에 앉아 장구를 치며 [초감제>젯드리 얹혀 살려움] 제차를 이어간다.

[푸다시] 제차는 필요에 의해 삽입된 듯 보인다. [푸다시]는 잡귀에 범접되어

63) 이명걸이는 심방 복색 중 이마에 묶는 끈을 말한다. 보통 빨간색이다.

64) 신자리는 제주도 곳곳에서 제상 앞에 깔아 놓은 돛자리를 말한다. 심방이 굿을 진행할 때 주로 앉거나 서 있는 자리이다.

일어난 병을 잡귀를 쫓아냄으로써 치료하는 치병의례(治病儀禮)이다. 푸다시를 하는 제장(祭場)은 환자의 집, 바닷가, 부락신의 당(堂) 등 일정하지 않다. 푸다시 곳은 초감제와 푸다시로 이루어져 있다.⁶⁵⁾ 이후 [시왕맞이] 전까지 석살림에서는 동일하게 [푸다시] 제차가 나타난다.

나) [석살림]⁶⁶⁾

여기서 [석살림]이 세 번 연행하였다고 하지만 제차를 자세히 보면 독립된 [석살림] 제차가 두 번이고, 첫 번째 [석살림]에서 놀판이 두 번 연행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석살림>신메움]에서 옥황상제(玉皇上帝)부터 신메우다가 조상신 부분에서 광청할망본풀이를 구연하였다. 다시 신메움이 진행되고 상촉권상, 삼주잔권잔, 주잔넘김으로 신메움 제차를 마무리한다. [석살림>신메움>바랑탐]으로 일월조상, 선왕을 신메우고 덕담소리로 군웅일월, 광청할망을 놀린다. 심방과 본주 가족들이 나와 함께 춤을 춘다. 광청할망을 노래할 때 본주 가족들이 제상에 절을 한다. 다시 서우젯소리하며 선왕과 광청할망을 노래한다. 광청할망을 노래할 때 본주가 신자리로 나와 앉는다. 서우젯소리는 계속 진행이 되며 심방이 본주에게 삼색물색으로 푸다시와 같은 행위를 한다. 다른 심방도 나와 춤을 추고 좃인 서우젯소리로 넘어간다. 좃인 서우젯소리 끝부분부터 푸다시 행위가 시작되고 좃인 서우젯소리가 끝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푸다시 제차가 연행된다. 주잔넘김으로 제차를 마무리하고 제차넘김을 한다. 그리고 분부사뵈므로 끝이 난다.

그러나 다시 덕담소리로 놀판이 진행된다. 덕담소리가 들어가기 전 “일월 제석은 녀들입곳이웨다”라고⁶⁷⁾ 말명을 하고 덕담소리 첫 부분은 “어제 오닐은 오닐이라~”로 시작하여 잠깐 베포도업 내용이 들어간다. 이후 군웅본판 내용으로 넘어간다. 군웅본판은 방구를⁶⁸⁾ 치며 마무리를 하고 다시 덕담소리로 광청할망본풀이를 구연한다. 여기서 구연방식이 ‘소리+말명’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심

65)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341쪽-344쪽 참조.

66) 강정식 외, 『동북 시왕맞이』, 167쪽-244쪽.

67) 강정식 외, 『동북 시왕맞이』, 194쪽.

68) 방구는 북을 ‘덩덩’ 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외의 가락은 없다. 말명 끝에 방구를 친다.

방은 구연하면서 요령을 흔들고 소미들은 장구와 북으로 장단을 친다. 그리고 북을 치는 소미는 심방이 요령을 칠 때 방구도 같이 친다. 이후 서우젯소리로 넘어간다. 가사 내용은 관용구화된 서우젯소리 가사로 시작하여 광청할망본풀이 내용을 한다. 심방이 신자리에 방석을 놓으며 본주가 앉도록 한다. 푸다시 행위를 하며 서우젯소리, 좇인 서우젯소리로 이어간다. 소리가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푸다시를 한다. 주잔넘김을 하고 제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휴식을 취한다. 저녁식사가 마치고 나서 다시 석살림을 시작한다. 이것이 두 번째 석살림인 것이다.

두 번째 석살림에서는 연유담음에서 광청할망본풀이를 구연하였다. 신메움에서 다시 옥황상저부터 신메움을 한다. 첫 번째 석살림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덕담소리에서는 베포도엽 내용을 하고 균웅본판으로 넘어간다. 심방이 다시 본주가족들에게 춤을 출 것을 권한다. 다들 나와 춤을 춘다. 덕담소리에서 균웅본판 이후 광청할망본풀이가 구연된다. 신칼점을 보고 덕담소리가 마무리가 된다. 이후 심방은 서우젯소리를 한다. 여기 서우젯소리 제차에서 특이한 점은 서우젯소리+별풀이가 진행된 점이다. 별풀이는 푸다시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서우젯소리와 같이 한 것이다. 다시 좇인서우젯소리를 하고 별풀이를 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푸다시를 한다.

초감제 이후 독립된 제차로 석살림을 다시 재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석살림

- 말미

- 석살림 1

날과 국 심김 / 연유담음 / 신메움 (신메움-광청할망본풀이-신메움 / 상축권상 / 삼주잔권잔 / 주잔넘김) / 놀판 1 (바랑탐 / 덕담소리 / 서우젯소리) / 푸다시 / 주잔 넘김 / 제차 넘김 / 분부사림 / 놀판 2 (덕담소리-광청할망본풀이 / 서우젯소리) / 푸다시 / 주잔 넘김

휴식, 저녁식사

- 석살림 2

말미 / 날과 국 심김 / 연유담음 (광청할망본풀이) / 신메움 (상축권상 / 삼주잔권잔 / 주잔 넘김) / 놀판 (덕담소리 / 서우젯소리) / 푸다시 / 주잔 넘김 / 제차 넘김

다) [시왕맞이>초감제>오리정 신청계>일월 청함]⁶⁹⁾

[시왕맞이>초감제>오리정 신청계] 제차에서 말명을 하고 중판과 중판감장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반복하며 신명을 말한다. 옥황상제, 불도할마님, 지부스천대사님 등 신의 위계(位階)에 맞춰 신을 청한다. 좃인중판으로 넘어가면서 시왕을 청한다. 다시 차사를 청하고 이후 장단이 좃인석으로 넘어가며 일월조상신을 청한다. 이때 석살림이 들어갔다. 춤이 반복적으로 연행되는데 일월 청함에 석살림을 하며 노래가 삽입된다. 장단은 중판을 시작으로 좃인석을 하며 굿판의 분위기는 최고조가 되었을 때 석살림이 연행된 것이다.

[석살림>놀판]이 연행되었는데 덕담소리와 서우젯소리를 하였다. 심방은 소리를 하며 요령도 같이 흔들었다. 본주를 신자리로 불러내지는 않았지만 서우젯소리를 하며 심방이 본주가 있는 자리로 가서 푸다시 행위를 하였다. 좃인서우젯소리를 잠깐 부르고 신칼짐, 주잔넘김을 하고 제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분향뎡, 영혼영신·옛 선생 청함으로 오리정 신청계 제차가 계속 이어진다.

라) [시왕맞이>석살림]⁷⁰⁾

독립된 석살림 제차로 추물공연 이후 체서본풀이를 하고 나서 연행되었다. 놀판 중 서우젯소리만 하였다. 서우젯소리, 좃인서우젯소리 순서로 구연하였다.

서우젯소리를 하는 동안에 심방이 본주 가족을 신자리로 불러낸다. 본주 가족은 제상에 절을 하고 춤을 춘다. 본주도 함께 나와 춤을 춘다.

서우젯소리에서는 요왕신, 광청할망을 노래하고 좃인서우젯소리에서는 영감신 본풀이를 노래하였다. 이후 좃인석 장단으로 다함께 춤을 추었다. 주잔넘김, 제차넘김을 하고 석살림 제차를 마무리하였다.

『동북 시왕맞이』에서는 석살림 굿이 총 다섯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제차 형

69) 강정식 외, 『동북 시왕맞이』, 314쪽.

70) 강정식 외, 『동북 시왕맞이』, 388쪽.

태도 다양하다.

(1) 초감제의 신청계에서 군웅일월을 청하여 놀릴 때 벌임에 해당하는 제차로 [초감제>젯드리 얹혀 살려움]에서 군웅일월 들, [시왕맞이>초감제>오리정 신청계]에서 일월 청함에서 석살림 곳을 하였다.

(2) 초감제와 맞이굿 사이에서 독립 제차로 벌임에 해당하는 제차로 [초상계·추물공연] 이후로 두 번 하고, [시왕맞이]에서 [체서본풀이] 이후에 한 번 하였다.

(3) 맞이굿의 마지막 제차로 벌임에 해당하는 제차는 없다.

내용으로 보면 조상신(광청할망), 군웅신, 선왕신 순으로 그 횟수가 광청할망본풀이가 우세하다.

본주 집안은 ‘광청할망’을 조상으로 모시는 집안인데 이 조상신을 잘 놀리기 위하여 굿을 하였다고 한다.

조상신본풀이가 구연된 제차를 보면 연유담음, 신청계, 신메움, 석살림>놀판이다. 이렇듯 조상신본풀이는 어느 제차든 기회만 있으면 구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상신본풀이가 독립된 제차로 구연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심방댁 맞이굿 - 이연실 심방댁 5일굿

『이연실 심방댁 5일굿』은 작은굿에 해당하며 2014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하였다. 이 굿은 초감제, 불도맞이, 요왕맞이, 시왕맞이, 당주연맞이로 구성되었다. 이연실 심방은 39세에 우연히 하귀리 번대동에서 멧두칼을 발견한 이후부터 굿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 굿을 한 것이 아니고 오방신장을 모셔 육지굿을 하였다. 큰굿보존회 회원이 되면서 제주도 굿도 하게 되어 그 고마움에 역가를 받치는 굿을 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굿은 역가 받치는 굿인 셈이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주도 굿을 하겠다는 신고식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⁷¹⁾ 이러한 내용은 연유담음에 잘 나타나 있다.

71) 2014년 11월 11일 현장에서 서순실 심방과 이연실 심방 면담 내용.

이 곳에서는 석살림 제차가 4번 연행되었다.

가) [초감제>젯드리 얹혀 살려움]⁷²⁾

심방이 신자리에 앉아서 장구를 치며 [초감제>젯드리 얹혀 살려움] 제차를 구연하다가 말명에 일월조상, 군웅조상이 나오기 시작하니 소미가 연물을 준비한다. 소미가 바라를 찾아 제상 앞에 놓는다. 그리고 향로를 점검한다. “오리정 신메움네다~” 말명 이후에 좇인중판 장단이 시작되고 심방이 장구를 뒤로 놓고 공식상에 있는 바라를 잡고 신자리를 서성이며 바라를 친다. 신자리에서 바라점을 본다. 삼색물색을 달아 맨 대나무를 들고 좇인석에 맞춰 어지럽게 춤을 추다가 좇인석감장으로 감장돌기를 한다. 제상 앞에서 바라점을 보고 다시 당주상 앞에서 바라점을 본다.

연물 장단은 느려지며 중판으로 넘어가고 심방이 신칼을 잡고 절하듯이 한다. 연물 장단은 더 느려지며 늦인석으로 넘어가며 심방은 신칼점을 본다.

소미들이 먼저 “어~ 녀사로다~ 산이야 뒤야 어~ 산넘어 간다 물넘어 간다~”라고 노래하면 [석살림>놀판]으로 이어진다.

어리성!

아이고 지치고 다쳤구나. 우리 소미덜토 푸드쟁허난, 지천. 소나이 심방은 대양메영 줌자고, (소미 : 맞아) 여자심방은 (불칭) 씨게 두드리고, 우리 정제이모, 우리 맥이젠 허난, 열심히 썰젠 허난, 지치고. 이집이 조상덜이, 전이 어신 울뽁소리가 나암구나. 금바랑 전지 옥바랑 전지로, 조상님네덜 놀고가자. 벨로 놀카. 오닐로 놀카.

심방이 이렇게 말명을 하는 동안에 소미들이 연물을 정리하고 소미 두 명이 장구를 각각 잡고 앉는다.

심방이 “오닐 오닐~ 오닐은 오닐이라”라고 덕담소리를 시작한다. 덕담소리 내용은 베포도업침, 연유담음, 군웅본풀이, 선왕본풀이 순서로 구연한다. 덕담소리 중간 중간에 요령을 혼든다. 소리가 끝날 무렵 신칼점을 본다.

72) 2014년 11월 7일 오후 2시 30분경부터 시작하여 약 37분 동안 진행하였다. 수심방인 서순실 심방이 연행하였고, 복색은 웨지, 이명걸이 차림이며, 무구는 신칼, 바라, 감상기를 사용하였다.

심방은 당주상 앞으로 가 서서 초공본풀이를 구연한다. 구연방식은 말명하고 덕담소리를 반복하며 초공본풀이를 푼다. 신칼점을 보고 비념을 하고 담불소리를 한다. 담불소리 내용은 오방신장 내용을 한다. 서우젯소리로 넘어간다. 내용은 선왕신 내용이다.

이 때 본주가 신자리로 나와 제상에 반절을 하고 춤을 춘다. 소미들은 다같이 받는소리를 한다. 장단이 점점 빨라져 좃인 서우젯소리로 넘어간다. 노래가 멈추고 연물장단이 좃인중판을 치기 시작하니깐 본주와 심방이 신자리에서 춤을 춘다. 심방은 문전상에 있는 물그릇을 들고 한 모금 입에 물고 본주 등에 뿌린다. 본주는 계속 춤을 춘다. 소미가 오방신장기를 본주에게 준다. 본주는 오방신장기를 들고 춤을 춘다. 본주가 오방신장기를 내려놓고 신장칼을 잡고 다시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한다. 장단은 좃인석으로 넘어간다. 신장칼을 문전 밖으로 내던지고 다시 오방신장기를 잡고 춤을 춘다. 좃인석감장으로 감장돌기를 한다.

심방이 연물석을 보며 손짓하며 장단을 끝내라는 신호를 보내자 장단이 멈추고 놀레소리를⁷³⁾ 시작한다. 본주가 오방신장기를 내려놓고 놀레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본주가 제상을 향해 절을 한다. 심방이 본주를 당주상을 향하게 몸을 돌려준다. 본주가 당주상 앞에서 고개 숙여 앉는다. 심방은 본주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놀레



사진 1 놀레소리 구연 장면

소리를 계속한다. 놀레소리의 내용은 본주의 아픈 몸을 풀어달라는 내용으로 비념과 비슷하다.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소미는 오방신장기를 정리한다. 노래가 끝나고 심방이 주잔님김 제차말명을 하며 장구와 방석을 들고 신자리에 앉는다. 이후 [초감제>젯드리 앓혀 살려움]제차가 계속 진행된다.

석살림 제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3) 놀레소리는 삼공본풀이 구연 시 불러지는 노래이며, 시작 부분이 덕담소리 시작 부분 가사와 동일하다. 하지만 곡조는 다르다. 장단 빠르기는 덕담소리보다 느리고 9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감제>젓드리 얹혀 살려움>군웅일월 들

석살림

- 석시말미

- 놀판

덕담소리 / 초공본풀이 / 담불소리 / 서우젓소리 / 놀레소리

- 주잔님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석살림>놀판]에서 초공본풀이 삽입과 놀레소리이다.

초공신은 무조신으로 젓드리에 나타나는 신의 계위로 9번째에 해당한다.⁷⁴⁾ 그런데 신의 계위로 16번째에 해당하는 군웅일월조상신 대목에서 초공본풀이가 구연된 것이다. 이는 심방들의 의식에서 무조신 즉 초공신을 당주일월조상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놀레소리는 심방택 곳인 경우에만 특별히 구연된다. 그러나 석살림 제차에 매번 구연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만 구연되었다.

초공본풀이는 [불도맞이]하기 전에 수심방이 신자리에 앉아 장구로 말미장단을 치면 독립된 제차로 구연하였다.



나) [석살림]⁷⁵⁾

[초상계·추물공연] 제차 이후에 심방이 신자리로 나와 석시말미를 시작으로 석살림 제차를 한다.

얹인제 중당클, 연양탁상~, 좌우접상~, 안으로 연양당주전, 고옛선성님 안팎 신공서, 부모조상 어 간뉘어, 잇입네다. 초감제 연드리, 메운 신전님네, 신이 부퍼옵네다. 어~ 신메와 석살릅네다.

말명 이후 심방은 중판감장 연물장단에 맞춰 감장돌기를 하고 중판에 맞춰 신 자리에서 신칼을 휘둘리며 춤을 춘다. 다시 중판감장으로 감장돌기를 한다.

74) 현용준, 『사전』, 21쪽-22쪽 참조.

75) 2014년 11월 7일 오후 7시 이후부터 약 112분 동안 진행되었다. 오춘옥 심방이 퀘지, 이명걸이 복색 차림에 신칼, 요령, 감상기를 들고 구연하였다.

신메와 석살리난~, 자단 신전님 자단 깨어난 듯, 졸단 신우조상 졸단 깨어난 듯, 신이 부퍼옵네다.

말명 이후 날과 국 섬김, 열명, 연유닭음 순서로 제차가 진행된다. 연유닭음 말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초공본풀이를 풀어야 할 차례인데 여기서는 안 풀고 다음로 넘긴다는 말명이 나온다.

각당더례 우올려, 초생게 연드리로, 연양탁상, 좌우접상, 우올려, 츠레츠레 (불칭), 천하금공서 올려신디, 당주전더례 곱갈라, 팔저곳인 집이난, 천하금공서, 설운 원정 곱갈라, 올려두고, 초공 풀 츠레이우다만은, 츠처이쳐 풀고

(중략)

원아흔 녀난 즈순 불령 녀 들이고 녀신마다 몸받은 신장일월 즈순털 심방덜토 잘 놀리주만은 본인으로라도 잘 놀령 조상 잘 석시 석시 신장일월도 놀리고 멩두조상도 놀리고 당주일월도 놀리고

조상신 이외에 신장일월, 멩두조상, 당주일월을 놀리쨌다는 말명을 한다.

이후 신메음 제차가 진행되는데 연물장단은 중판-중판감장-말명-중판-중판감장-말명-중판감장-신칼점-말명-중판감장-중판-신칼점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후 상측권상 삼주잔권잔 제차가 이어진다. 먼저 향로를 들고 연물장단은 중판감장-중판-중판감장 순서에 맞춰 춤을 추었다. 이후 삼주잔과 댓잎을 들고 나와 댓잎으로 삼주잔의 술을 적서 뿌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중판-중판감장-중판 순서에 맞춰 춤을 추었다. 이후 주잔넘김을 하였다.

바랑탐 제차로 심방이 요령과 향로를 들고 켜 걸음으로 뛰다가 요령과 향로를 내놓고 자신이 매고 있는 켜지 띠를 양손에 나눠 잡고 흔들며 댄다. 좃인석감장으로 감장돌기하고 좃인석 연물에 맞춰 신자리에 앉아 공깃상에 있던 켜지 띠를 한쪽 어깨에 걸쳐 묶는다. 송낙을 쓰고 바라를 들고 장단에 맞춰 바라를 친다. 신자리를 서성이며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며 바라를 친다. 좃인석감장으로 감장돌기하고 잠깐 수록장단으로 이어지며 심방은 바라점을 본다.

다시 좃인석 연물장단이 이어지고 심방이 신칼을 들고 춤을 춘다. 소미가 감상기를 전해주시니 문전으로 가 술잔의 술을 한 모금 입에 물고 감상기에 뿌린다. 다

시 신자리로 와 춤을 춘다. 좃인석감장으로 감장돌기하고 좃인중판 연물장단으로 넘어가면서 심방이 신자리에서 신칼점을 본다.

“넉사로드 만이야 뒤야 어~ 어~ 산넘어간다 물넘어간다. 도리소~” 심방과 소미가 이렇게 소리를 하며 제장을 정리한다. 장구를 연물석으로 가지고 온다. 이후 [석살림>놀판] 제차가 이어진다. 심방은 신자리에서 서서 덕담소리를 한다. 내용은 균옹본풀이 내용에 이어 연유뒸음 내용을 구연하였다. 이때 본주가 신자리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소미가 “좋다”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서우젯소리로 넘어간다. 장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덕담소리와 서우젯소리가 같은 장단임을 알 수 있다. 장단이 빨라지면서 좃인서우젯소리로 넘어간다. 노래가 멈추고 연물장단이 좃인석으로 넘어간다. 본주는 신자리에서 격렬하게 춤을 춘다. 소미 한 명이 북과 설채를 같이 친다. 장단은 점점 더 빨라지고 소미 둘이 안팎연물로 서로 번갈아가며 대양을 친다. 점점 장단은 빨라진다. 심방은 췌지를 벗고 복색을 정리한다. 소미들이 서로 자리를 옮겨 악기를 바꿔친다. 하지만 대양은 여전히 두 개로 안팎연물로 서로 번갈아가며 친다. 본주는 계속 신자리에



사진 2 [석살림>춤춤] 제차 장면

서 어지럽게 춤을 춘다. 좃인석감장으로 감장돌기를 한다. 본주는 신자리에 앉아 제상을 향해 절을 한다. 심방이 주잔넘김으로 이어간다. 산판점을 본다. 분부사뒸, 제차 넘김을 하고나서 심방은 신자리에서 신앙민이 있는 자리를 향해 굿을 했다고 말하며 절을 한다. 다들 수고했다고 대답을 한다.

석살림 제차 구성을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석살림

- 말미
- 날과 국 섬김
- 연유뒸음
- 신매음

신매음 / 상축권상 / 삼주잔권잔 / 주잔넘김

- 놀판

바랑탐 / 덕담소리 / 서우젯소리

- 춤취음

- 주잔 넘김

- 산받고 분부사뵈

- 제차넘김

새롭게 [석살림>춤취음] 제차를 넣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두린곳]에 나타나는 제차이다. 신자리에서 본주만 나와 춤을 추게 하는 것으로 동일한 제차로 보인다. 이후 [시왕맞이>초감제>오리정 신청계>일월 청함]에서도 나타난다.

다) [불도맞이>메어들어 석살림]⁷⁶⁾

서순실 심방이 꿰지 띠를 한쪽 어깨에 걸쳐 묶고 장구를 앞에 놓고 신자리에 앉아 초공본풀이를 구연한다. 이후 [불도맞이]가 시작된다.

[불도맞이]는 초감제⁷⁷⁾-추물공연⁷⁸⁾-수룩침⁷⁹⁾-할망질침⁸⁰⁾-수레멜망악심질침⁸¹⁾-메어들어 석살림 순서로 진행되었다.

심방이 [불도맞이>수레멜망악심질침>할망드리 나춤] 제차 이후 신자리에서 바

76) 2014년 11월 8일 오후 4시 이후 약 5분 동안 진행하였다. 강대원 심방이 두루마기 차림으로 송낙을 쓰고 송낙대, 바라를 들고 구연하였다.

77) [불도맞이>초감제] 제차는 각당배례-베포도업침-연유담음-열명-새드림-군문열림-오리정 신청계-즈손역가 소지원정-산받음 순서로 연행되었다.

78) [불도맞이>추물공연] 제차는 말미-공선가선-날과 국 섬김-연유담음-추물공연-비념-주잔넘김-산받음-제차넘김 순서로 연행되었다.

79) [불도맞이>수룩침] 제차는 말미-할망드리추김-분부사뵈-제비점 순서로 연행되었다. 연물은 수룩장단을 친다. 심방은 바라를 들고 수룩장단을 친다. 할망드리를 한쪽 어깨에 걸쳐 매고 좃인 중판에 맞춰 춤을 추다가 바라점을 본다. 심방은 신자리에서 할망드리(무명천)를 던지고 흔들며 춤을 춘다. 할망드리는 두 벌이다. 할망 지팡이를 들고 춤을 춘다. 연물이 좃인석으로 이어지고 좃인석감장으로 감장돌기를 하고 산판점, 신칼점을 본 후 할망지팡이(대나무에 기메를 묶어있음)를 들고 본주를 때리는 시늉을 한다. 본주 가족을 차례로 때리는 시늉을 한다.

80) [불도맞이>할망질침] 제차는 할망본-신칼점-제비점 순서로 연행되었다.

81) [불도맞이>수레멜망악심질침] 제차는 악심꽃꺾음-주잔넘김-꽃 타러 들-꽃풀이-할망드리나춤 순서로 연행되었다. 할망드리나춤 제차 이후에 본주 가족들 중 머느리 둘이 나와 할망드리를 잡는다. 심방과 서로 잡아당기기를 하다 심방이 놓자 머느리는 할망드리 천을 정리한다.

로 “나무~아~미”라고 담불소리를 시작하려고 하자 서순실 심방이 “아니 아니 잔잡혀복서”라고 말한다. 심방이 다시 “어디?”라고 말하고는 바로 이어 잔잡힘 말명을 한다.

안공시 선선님께 잔 받아, 제청더레 신수풀엄수다. 신장님네도 잔 받아 신수푼서. 삼불도 할마님네 문딱 진(陣) 안으로, 잉어메자함네다.

심방이 송낙대를 들고 담불소리를 구연한다. 담불소리는 늦인 담불소리와 담불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늦인 담불소리 장단은 특별한 가락이 없이 박을 잘게 쪼개서 빠르게 친다. “둥둥둥둥둥둥~” 장단소리는 약하다. 노래 가락은 느리며, 장단은 빠르고 약하게 치는 것이다. 심방이 연물석을 보며 큰 소리로 담불소리를 한다. 연물은 그에 맞춰 담불장단을 친다. 심방이 담불소리를 부르며 송낙을 쓰고 송낙대를 들고 춤을 춘다. 심방이 송낙대를 제상에 내려놓고 공깃상에 있던 바라를 들고 노래 장단에 맞춰 치다가 바라점을 본다. 제차넘김 제차를 하고 제상을 향해 절을 한다.

[불도맞이>메어들어 석살림] 제차를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불도맞이>메어들어 석살림

- 잔잡혀 신메움
- 놀판
- 느진 담불소리 / 담불소리 / 마랑탐
- 제차넘김

라) [시왕맞이>초감제>오리정 신청괘>일월 청함]⁸²⁾

심방이 “츄레 제츄레 오리정 신청괘 신메웁네다.” 말명을 시작으로 오리정 신청괘가 시작한다. 신을 청해 드리고 연물장단에 맞춰 문전에서 제상으로 신을 모셔 들이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후 [즈손 역가·소지원정] 제차를⁸³⁾ 하고 비념, 산

82) 2014년 11월 9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약 36분 동안 진행하였다. 서순실 심방이 퀘지, 이명걸이 차림에 신칼, 감상기, 바라를 들고 구연하였다.

83) [즈손역가·소지원정] 제차는 본주와 그 가족들이 신자리로 나와 심방과 나란히 앉는다. 소미가

받아 분부사됨, 주잔넘김을 하고 나서 시왕을 청하는 말명을 하고 앞 제차를 반복한다. 이후 심방이 당주일월 조상을 청하는 말명을 한다. 당주상 앞에서 요령을 흔들며 말명을 한다. [즈손 역가·소지원정] 제차를 당주상을 향해서 한다. 심방이 울며 말명을 이어간다. 차사를 청하는 말명을 하고 다시 앞 제차를 반복한다. 이후에 [홍포관디 조심띠 우올림-본향當舖-우봉지주잔-즈손 역가 소지원정-플찌거리 위올림]순서로 제차가 이어진다. 심방이 일월조상 청하는 말명을 하고 균웅치마를 한 쪽 어깨에 걸쳐 입고 물색을 흔들며 감상기를 들고 신자리에서 춤을 춘다. 연물은 좇인석 장단이다. 소미가 바라를 주니 양손에 나눠 잡고 장단에 맞춰 치다가 바라점을 본다. 심방이 다시 오방신장기를 들고 춤을 춘다. 좇인중판감장으로 감장돌기를 한다. 다시 신장칼을 들고 춤을 춘다. 바라점을 본다. 연물 장단이 중판으로 바뀌고 신칼과 요령을 들고 춤을 춘다. 신칼점을 본다.

소미가 먼저 “넉사로다 만이야 뒤야 어~ 도리소 산넘어간다 물넘어간다”라고 노래를 시작한다. 심방은 균웅치마를 벗는 동안 소미들이 나와 춤을 춘다.

어리성

지치고 다쳤구나



옛날도 영허난, 팔저긔인 유학형제간덜은, 이녀 형제간덜은 일년에, 혼 두 번 보나마나 허여도, 팔저긔인 형제간덜은, 무신일 나시민, 북도 혼 번 떼려주고, 대양도 혼 번 떼려주고, 팔저긔인 유학형제간덜이로구나. 아이고, 육지덜 (소미 : 브름구덕) 응. 소미로 들어온 즈순덜은, 아이고 말은 일이나, 허주만은, 아이고, (불청)씨 오라밧님, 경해도, 웨육촌 누이동생네 집이, (소미 : 맞주게게.) 이긔 험텐허난 오란, 아이고 크나 죽으나, 이긔 험 동안, (불청) 해주언. 아이고, 고마와 어떻허고, (아이고 오라방 갈 떼랑 양 (불청) 챙겨드리쿠다.) 이 집이, 조상덜이 놀암구나. 이 집 몸받은, 신장님이, 아이고야 나도 놀자. (불청)허단 너네, 조상만 우루적선혜영, 신장기를 못 네 우올리고, 신장에 몸받은, 영질 목탁을 혼 번, 네올리지 못허고, 아이고, 다 잘못헤엿수다. 아무리 몸받은 (불청)이라도, 신장님 믈음을, 다 알 수가 잇입네까. (불청) 오방각기 몸받은, 팔만팔천신장님도, (심방이 오방신장기를 잡는다.) 오닐날이라그네, 간장 간장 못친간장을, 다 풀려놔서. 내일로 놀카. 오닐로 놀카. 오닐로 (소미 : 비가 와도 오닐.) 에에, 저 누게한티 들어보지. ○석아. (본주가족 : 예.) 이젠 막긔해부난 좋다. 우리 혼 열흘만 더헤카? (본주가족 : 열흘로 웨쿠까?) 무사 죽아? (본주가족 : 예.) 자이 믈음이, 좋은 아이여. 열흘 죽텐, 안웨니텐, (소미 : 열흘로 안웨여.) 이왕 시작헌거, 혼덜 헤

역가상(천, 쌀 등이 올려져 있는 상)을 들고 제상을 향해 올리듯이 하며 모두 손을 내밀어 같이 올리듯이 한다. 그리고 절을 하고 소지(白紙)를 올렸다가 불을 붙인다. 심방은 같이 절을 하고 말명을 한다.

렌. (소미 : 어.) 춤 자이, 자이, 태평양 바다ㄱ치 먹음이 좋은 아이여. 지네 어멍은 ,지네 어멍은 인척이 ㄱ르난, 에에. 혼 닷세만 허겐, 허는디, 아이고 조상님, 옛날에 말 혼마디에, 천냥 빗(빗)을 갖는구나. (소미가 오방신장기를 심방에게 건네준다.) 야. 조상님이랑, 저 울뽕울짱소리로구나. 소리 좋은 울랑국, 북, 야, 삼동막 설운 장귀로 놀고 가자.

심방이 이렇게 말명을 하고 덕담소리로 넘어간다. 덕담소리 내용은 베포도업침, 연유닥음, 균옹일월, 당주일월, 오방신장 순서로 진행된다. 위 말명에도 나타나지만 오방신장을 잘 놀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말명에 오방신장이 들어간 것이다. 덕담소리가 시작되자 본주가 신자리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자 본주가족이 신자리로 나와 제상에 절을 하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덕담소리에 바로 이어 담불소리가 구연된다. 장단은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데 동일한 장단을 치고 있다. 당주일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심방이 공깃상에 있는 바라를 들고 장단에 맞춰 치며 노래를 한다. 장단은 멈추지 않고 바로 서우젯소리로 이어진다. 동일한 장단이다.

심방이 “어양 어양 어야로다 어기 여차 상사디로다”라고 서우젯소리를 시작하자 소미들이 “아 아 아~양 어~ 어양 어허요”라고 받는소리를 한다. 심방은 감상기를 들고 춤을 추며 구연한다. 장단이 점점 빨라지며 좇인서우제 장단으로 바뀐다. 심방은 계속 춤을 추며 좇인서우젯소리를 한다. 연물 장단 좇인중판으로 넘어



사진 3 서우젯소리 구연 장면

가자 노래가 끝이 나고 심방은 문전상에 있는 물그릇을 들고 입에 한모금 물었다 본주 등을 향해 뿌린다. 본주는 계속 춤을 추고, 신앙민은 제상을 향해 절을 하고 신자리를 나온다. 심방은 감상기를 제상에 올려놓고 신자리를 나와 연물석 옆에 앉는다. 연물 장단이 좇인석으로 넘어가고 본주는 계속 신자리에서 춤을 춘다. 심방이 대양을 들고 벌풀이 장단으로 넘어간다. 연물석 장단이 벌풀이 장단으로 넘어간다. 연물석은 어느새 설췌 두 개, 대양 두 개, 북 하나 이렇게 다섯이

치며 추임새를 넣는다. 소미가 신자리로 나와 격렬하게 춤을 춘다. 본주가 천을 들고 나오자 소미가 매듭을 지어준다. 그 천을 들고 춤을 추다 흔들면서 묶은 매듭을 푼다. 다시 소미가 이를 반복한다. 본주는 계속 춤을 춘다. 소미가 묶은 천을 들고 본주 몸을 때리듯이 하다가 묶은 것은 휘둘러 내리치며 푼다. 다시 소미가



사진 4 [석살림>배풀이] 제차 장면

다른 천(빨간색)을 묶는다. 그새 본주는 오방신장기를 들고 춤을 격렬하게 춘다. 소미는 천(빨간색)으로 본주 몸을 쓰다듬고 다시 문전 앞에서 휘둘러 내리치며 푼다. 다시 다른 천도 휘둘러 내리치며 묶은 매듭을 푼다. 본주는 다시 부채를 들고 춤을 춘다. 소미가 오방신장기를 들고 춤을 춘다. 본주에게 오방신장기를 준다. 본주는 오방신장기와 부채를 들고 춤을 춘다. 소미는 다른 오방신장기를 들고 서순실 심방에게로 가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 서순실 심방이 뽑자 다시 고쳐 잡아 다시 뽑으라고 한다. 빨간



사진 5 [석살림>영계울림] 제차 장면

기를 뽑자 소미는 오방신장기를 들고 신자리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고 오방신장기를 제상에 놓는다. 서순실 심방이 일어나서 연물을 멈추게 하고 본주에게 “ㄱ를 말은 곶아”라고 말하니 소미들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한다고 하며 본주가 말을 할 수 있게 부추긴다.

본주는 신자리를 서성이며 울며 말명을 하기 시작한다.

미안허다 미안허다 (서순실 심방 : 예~ 신장님에서 다 곶아줍서.)

아이고 아이고 무슨 말을 해야헐사 (서순실 심방 : 누게짜 누게짜?)

(울음 - 불청)

이제깃장 이제깃장 신장님을 모셔다가 (울음-불청)

(울음-불청) (서순실 심방 : 경해도 신장님 덕에 이제깃지 편안하게 살았수다.)

(울음-불청)

미안허다 미안허다 (서순실 심방 : 미안허지 맙서.)

(울음-불청) (서순실 심방 : 아이고 고맙수다. 신장님)

(울음-불청) (서순실 심방 : 아이고 신장님 고맙수다. 도와줍서. 다 풀려줍서.)

(울음-불청) (서순실 심방 : 앞으로 신장님 잘 네놀리멍 마무리 잘 허쿠다. 신장님)

(울음-불청) (서순실 심방 : 맞수다. 맞수다.)

연물을 치던 소미가 다시 한 번 춤을 출 것을 권하며 대양을 치기 시작한다. 좇인중판 연물이 시작되니 본주는 다시 춤을 춘다. 소미가 본주가 잡고 있던 오방신장기를 잡고 본주 몸을 쓰다듬는다. 그리고 제상에 올려놓는다. 좇인석으로 연물이 넘어가고 본주는 계속 춤을 춘다. 소미가 천을 정리하고 공깃상에 있던 신칼을 본주에게 준다. 본주는 신칼을 잡고 춤을 춘다. 좇인석감장으로 감장돌기를 하고 연물이 늦인석으로 변하면서 본주는 신자리에서 신칼점을 본다. 서순실 심방이 바로 이어 주잔넘김 말명을 한다. 심방은 신자리에 앉아 [초감제>오리정 신청괘]를 계속 이어서 구연한다.

석살림 제차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왕맞이>초감제>오리정 신청괘>일월 청함

석살림

- 석시말미

- 놀판

떡답소리 / 담불소리 / 서우젯소리 / 푸다시 / 배풀이 / 춤취움 / 영계울림⁸⁴⁾ / 춤취

움

- 주잔넘김

(1) 초감제의 신청괘에서 군웅일월을 청하여 놀릴 때 벌임에 해당하는 제차로 [초감제>젯드리 앓혀 살려움>군웅일월 들]과 [시왕맞이>초감제>오리정 신청괘>일월 청함]에서 석살림을 하였다.

84) 영계울림은 영가가 자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심방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때 울음 동반하기 때문에 영계울림이라고 한다.

(2) 초감제와 맞이굿 사이에서 독립 제차로 벌임에 해당하는 제차로는 [초상계·추물공연] 이후로 석살림은 한 번 연행하였다.

(3) 맞이굿의 마지막 제차로 벌임에 해당하는 제차로는 [불도맞이>메어들어 석살림]에서 연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덕담소리, 담불소리, 서우젯소리 외에 놀레소리가 불린다는 점이다. [초감제>젯드리 얹혀 살려움>군웅일월 들]에서 석살림을 할 때 ‘놀레소리’가 연유담음 내용으로 구연되었다.

내용으로 보면 연유담음 내용과 초공본풀이, 군웅본풀이 등 불려졌다. 그 중에서도 연유담음 내용인 본주의 내력에 대하여 많이 구연되었다.

(3) 두린굿 - 『제주도 추는굿』⁸⁵⁾

『제주도 추는굿』은 두린굿으로 환자의 병을 춤으로 고치는 치병의례(治病儀禮)이다. 심방이 소미들의 연물 악기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환자에게 춤을 추도록 한다. 그 노래는 ‘서우젯소리’가 대부분을 이룬다. 제주도 굿에서 일반적인 모습은 심방이 굿판에 나와 주도적으로 춤을 추거나 사설을 노래하지만, 두린굿은 환자가 굿판에 나와 춤을 추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두린굿에서 심방과 소미는 굿판의 주체인 환자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⁸⁶⁾

이 굿의 제차를 살펴보면,

①삼석울림 ②초감제 ③석살림 제1석 ~ 제24석 ④넛들임 ⑤푸다시 ⑥공시풀이 ⑦도진 ⑧벨고스 ⑨영감놀이 ⑩푸다시 ⑪방선 ⑫막푸다시

초감제의 구조를 보면, 초감제 연유-날과 국 섬김-연유담음-군문열림-주잔 권잔-분부사뵈므로 이루어져 있다. 초감제 연유는 “제청(祭廳) 신도업으로 제으 르난” 말명으로 시작하여 이 굿을 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신에게 알리는 제차이

85) 고평민·강정식, 『제주도추는굿』, 국립문화재연구소, 도서출판 피아, 2006.

86) 고평민 외, 『추는굿』, 19쪽.

다. 날과 국 섬김에서 시간과 장소의 지리적 특성을 열거하며 굿하는 장소가 제주도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린다. 시간 역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린다. 이제 다시 이 굿을 하는 이유를 연유담음에서 다시 설명한다. 그리고 신이 내려올 수 있도록 군문을 열어달라고 청하고, 무구을 이용하여 점(占)을 쳐서 신이 왔는지를 확인한다. 여기까지가 청신의례(請神儀禮)이고, 주잔권잔은 신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어떠한 신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신들이 와서 환자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한다. 사실 기본적인 주잔권잔 제차보다는 기원(祈願) 부분이 더 들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부사뎌은 이러한 신들에게 묻고 점을 통하여 그 신의(神意)를 본주와 환자에게 알리는 제차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다. 특별한 점은 없다. 하지만 ③석살림 제차를 통해 치병의례(治病儀禮)가 연행된다.

③석살림은 무려 24석으로 이루어졌다. 큰굿에 열두 석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 굿이 큰굿은 아니다. 석살림의 기본적인 기능은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신을 청해 들려 이제 좌정을 하고, 음식 등 여러 가지를 대접하고 나서 이제 즐겁게 놀 시간이 온 것이다. 두린굿에서는 신을 잘 놀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같으나 여기에 치병(治病) 기능이 더 포함되어 있다. 석살림 제차에서 환자의 몸에 들어갔을 잡신(영감, 야채 등)을 표출시켜 그 잡신과 대화를 하며 잡신이 환자의 몸에서 떠나게 하여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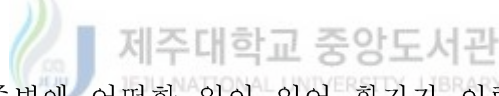
그 이후 송신의례(送神儀禮)를 하기 전에 ④넋들임 제차를 통해 혹시 나갔을지 모르는 환자의 넋을 들인다. 넋들임 제차는 넋을 찾고 넋을 들이는 의례이다. 넋을 들이고 액막음을 한다. ⑤푸다시로 또다시 잡귀가 몸에 붙는 것을 막는다. ⑥공시풀이는 송신(送神)의 개념이라기보다 심방의 내력을 푸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내력도 같이 푼다. ⑦도진으로 신을 보내는 단계로 끝이 난다. 여기까지는 굿이 환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후 다시 날을 잡거나 바로 밖으로 나가 마지막 송신의례(送神儀禮)로 ⑧벨고스, ⑨영감놀이, ⑩푸다시, ⑪방선, ⑫막푸다시로 모든 신을 보내는 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 구조를 다시 내용으로 나누어 본다면, 굿을 하게 된 이유와 신의 내력, 환자의 내력 등이 있다. 환자의 고단한 삶을 풀어내 신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만이 듣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환자의 가족들, 심방들, 마을 사

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눈물을 흘려준다. 그리고 신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낸다. 그 신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신이 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등 이렇게 다시 신의 내력을 풀어낸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비슷하고 우리네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이 한(恨)에 해당한다. 이 한(恨)을 풀어낼 때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보게 된다.

돈아돈아 말모른돈아 악마ㄱ뜬 이금전들랑
 설운애기 부모일찍조실흐난 좋은금전 벌젠혜연
 저경기도 서울지멘 마장동지멘 저공장가근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시간밥먹고 시간줍자고
 붉은구실에 푸린구실 노린구실에 열두구실
 친구벗좋고 고향멀고 부모형제 다버려두고
 어떤사람 팔즈가좋아 양신부모에 고향집사는고
 [굿 구경하고 있던 동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고등학교 대흑나왕 사회에서 출세하고
 월급생활 직장생활흐명 일천간장 다뭉쳐구나⁸⁷⁾



서울에서 환자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어 환자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씨 집안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4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나 집안 경제를 맡아 일찍 서울 공장으로 일하러 올라가서 매달 집으로 20만원을 보내는 그런 착한 딸인데, 이렇게 몸이 아파 집으로 내려오게 된 슬픈 사연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환자의 어머니도 울고, 환자도 울고, 심방도 울고, 마을사람들도 모두 운다.

신이 내려와 있고, 환자, 신앙민 모두 한자리에 있으니 이제 신을 잘 대접하고 즐겁게 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 소원은 잡신이 든 환자의 몸에 잡신이 떨어지고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석살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리고 냇을 들이고, 액을 막고, 푸다시를 해서 신을 보낸다. 별도 고사를 따로 하면서 실제 잡신이 떠나는 과정을 영감놀이로 하며, 마지막으로 서우젯소리로 한 번 더 놀고 신을 보낸다. 배방선을 통해 실제로 신이 떠나는 모습을

87) 고헤민, 『추는곳』, 74쪽-75쪽.

모의적으로 재현한다. 그럼으로써 환자나 신앙민이 안심을 하고 곳을 마칠 수 있는 것이다.

두린곳에서의 석살림 제차 구조는 개잔개수-노래-도량춤-주잔권잔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래와 춤만 하는 경우도 있다. 노래로는 덕담, 담불소리, 서우젓소리가 구연된다. 이 세 가지 노래를 다 부르는 경우도 있고, 곳의 성격에 따라 혹은 제차의 성격에 따라 노래가 선택된다.

치병의례인 두린곳에서는 신의 내력을 풀며, 신을 잘 놀린다. 또한 환자의 내력을 풀며, 환자를 잘 놀려 신명을 풀어내는 것인데 석살림은 그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왜 석살림 노래 중 서우젓소리가 선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잡신의 성격이 도깨비로 바라보는 제주도 무속사회의 질병관 때문이다. 물론 환자의 집안이 바다와 관련된 직업이기도 하다.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조상을 잘 섬기지 않아서 생긴 질병은 간접적인 질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이 혼(魂)의 탈출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와 잡신이 인간에게 범접하여 일어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넋들임’이라는 곳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는 탐혼주입의례(探魂住入儀禮)이다. 두 번째 경우는 ‘새드림, 푸다시, 두린곳, 구삼승 냄’이라는 곳으로 치료를 한다. 이를 협박구축의례(脅迫驅逐儀禮)라 한다. 즉 혼(魂)이 나가도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잡신이 들어와도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혼(魂)의 출입(出入) 모두가 질병의 원인된다. 치병의례로 나간 혼(魂)은 넋들임 의례를 통해 주입(住入)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잡신이 들어와 생긴 질병은 두린곳 의례를 통해 다시 협박구축의례(脅迫驅逐儀禮)를 통해 출(出)을 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협박구축의 대상은 잡신이다. 두린곳의 잡신은 ‘영감’이라고 한다. 달리 참봉, 또는 야채라고도 하는데 도깨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신의 본풀이 내용은 허정승의 아들들의 이야기이다. 이 아들들은 성장하여 국내의 각 지역을 차지하여 가는데, 큰 아들은 서울 삼각산 일대를, 둘째는 백두산 일대를, 셋째는 금강산 일대를, 넷째는 계룡산 일대를, 일곱째는 제주의 한라산 일대를 각각 차지하여 갔다.⁸⁸⁾ 이 신의 성격은 돼지고기나 수수범벅을 즐겨 먹고, 해변, 수중, 산중 할

것 없이 어디나 돌아다니며, 특히 비가 오려는 칙칙한 밤이나, 안개 낀 음산한 날을 좋아해 잘 나타난다고 한다. 해녀나 과부 등 미녀를 좋아하여 같이 살자고 따라붙어 병을 주거나 한다.⁸⁹⁾

이 곳에서 석살림의 서우젯소리 내용을 보면, 우선 환자의 내력, 환자 가족의 내력, 신의 내력, 그리고 심방의 내력, 기원의 내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환자의 내력과 환자 가족의 내력은 곳의 연유와 동일하다. 신의 내력은 영감신의 본풀이 내용과 동일하고, 심방의 내력은 심방의 공시풀이 내력을 말한다기보다 심방이 노래하는 주체자임으로 자신이 가사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노래 가사의 보편적인 서정성이나 혹은 자신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비춘다고 볼 수 있다. 심방은 이렇게 노래 가사로 다시 한을 풀어내고 있다.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면서 춤을 춘다. 심방도 울고, 환자 가족도 운다. 그 자리에 온 마을 사람들도 운다. 모두 다 같이 울면서 노래하다 춤을 춘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기원의 내용은 신에게 잘 놀았으니 이제 환자와 이별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제20석부터는 신과의 이별 내용이 불려진다. 제24석에서는 [대김받음]이라는 제차를 하면서 그 이별을 확실하게 다짐을 받는다. 심방이 환자에게 묻고, 환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놀이와 다른 형태이다. 심방은 버드나무로 환자를 때리며 질문을 한다. 처음은 환자에게 왜 이렇게 춤을 추느냐를 물으면서 환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환자에게 든 잡신에게 묻는다. 환자와 이별을 할 것인지, 어디로, 언제, 몇 시에 나갈 것인지 등 자세히 묻는다. 환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며,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인지(認知)하고, 다시 잡신이 되어 심방의 질문에 대답한다. 이로써 진정으로 잡신이 떠나는 것을 확실하게 다짐을 받으며 환자는 안심을 한다. 여기서 환자는 시원하다는 말을 한다. 그럼 심방이 다시 춤을 추라고 하며, 한바탕 춤을 추고 [대김받음] 제차를 마친다.⁹⁰⁾

송신의례(送神儀禮)인 영감놀이에서 다시 서우젯소리가 불린다. 그 내용 역시

88) 고광민 외, 『추는굿』, 21쪽.

89) 고광민 외, 『추는굿』, 287쪽~288쪽.

90) 고광민, 『추는굿』, 34쪽-36쪽, 참조.

기원의 내용으로 이별을 노래한다. 환자가 이별주 한 잔을 먹고, 이별을 노래하며 마지막으로 춤추며 신명을 풀어낸다.

실제로 잡신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나 환자 가족의 마음을 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 받고자 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힘들게 살아왔으니 알아주라는 것이다. 이 곳을 통해 힘들게 살아온 기억들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 공동체신앙의 전승양상

(1) 『칠머리당 영등굿』⁹¹⁾

칠머리당 영등굿은⁹²⁾ 초감제-요왕맞이-씨드림-액막이-영감놀이-도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석살림 제차는 초감제에서 연행되었다. 초감제 제차를 보면 삼석울림-계문열림-베포도업침-제청도업-날과국섬김-열명-연유담음-군문열림-새드림-오리정신청례-오리정정태우-추물공연까지이고 그 이후 나까시리놀림-지장본풀이-일천ㄱ루길침-삼천군병지사권을 하였다. 맞이굿인 요왕맞이가 이어진다. 이 곳에서 석살림 제차는 [초감제>오리정 신청례]에서 연행되었다. 오리정 신청례는 “어어어 일만팔천 신도님네 저먼정 부르건 들저 외건 들저 험네다 일년먹고 천년 살 금강머들 서늑미쫄 둘러받아 오리정 신청례로 신나수자” 말명을 하고 시작한다. 이후 연물이 이어지고 나서 칠머리당 본풀이를 한다. 이후 본향뚝 제차를 한다. 이후 “(중략) 세경에 일월, 몸주도 일월, 이즈순들 몸 받은 선왕일월님도 오리정 신청례로” 말명을 하고 석살림이 시작된다. 석살림 제차구성은 ③신메움 > 바랑탐 ④놀판 > 덕담말미 > 덕담소리 > 서우젯소리 > 상군좁수 굿 한석 > 해녀소리 > 서우젯소리로 되어있다. 다시 오리정 신청례로 이어진다. 제차명이 석살림으로 되어있지는 않다. 덕담소리가 시작되면 신

91)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도서출판 황금알, 2005. 자료는 2004년 3월4일에 한 것이다.

92) 제차 구성이 해설과 전사 자료가 다르게 되어 있어 전사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양민들이 신자리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후 서우젯소리, 좃인서우젯소리가 이어진다. 연플장단이 들어오며 신앙민들이 춤을 춘다. 연플장단이 느려지며 신앙민들은 제상을 향해 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이 때 ‘상군좁수 굿 한 석’이란 제차가 연행된다. 신앙민 한 명이 신자리로 나와 신칼을 들고 춤을 춘다. 그리고는 말명을 시작한다. 신앙민인 상군좁수(해녀)가 나서서 심방 흉내를 내는 것이다. 참여하는 신앙민들과 관객들에게 인정을 걸라고 하고는 인정을 받고 해녀노래를 부른다.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는 전 메인 심방인 안사인 심방이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나서서 이 자리에서 꼭 ‘해녀소리’ 한 가락을 해야겠다고 하며 울며 노래를 하였다.

그 이후 심방이 다시 서우젯소리로 이어졌다. 서우젯소리가 끝나고 오리정 신청께 제차가 이어진다. 이후에 영감놀이에서도 서우젯소리를 부른다. 영감신을 청하고 다시 영감신을 배를 태워 떠나 보내려고 하는 대목이다. 영감신을 서우젯소리로 신명나게 환관 놀게 하고 배를 태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석살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지만 여기서 서우젯소리가 불린 것은 만판의 개념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이때 석살림을 독립된 제차로는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심방 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심방은 시간이 허락하면 석살림을 따로 연행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요즘은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였다.⁹³⁾

(2) 동북리 본향당굿⁹⁴⁾

동북리 본향당굿은 제의의 명칭은 본향대제이다. 그 성격은 신과세제이다. 신과세제는 정월 연행되는 굿으로 신앙민들이 본향당을 찾아 신에게 과세(過歲)를 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굿이다. 동북리에서는 매해 정월 7일에 행해진다.⁹⁵⁾ 동북리 본향당굿은 당굿보다는 시왕맞이의 성격이 강한 굿이다. 대신맞이를 하여

93) 2014년 9월 26일 김윤수 심방 면담 내용.

94) 강정식, 『동북리 본향당굿』,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인텍스, 2011.

95) 강정식, 위의 책, 62쪽.

시왕을 청해 모신 뒤에 액막음을 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⁹⁶⁾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굿 제차는 켓문열림-예명올림-대세움-삼석올림-초감제-대신맞이-파지로 구성되어 있다. 굿 전체 초감제에서는 석살림을 하지 않고 그 뒤로 이어지는 ‘대신맞이’ 중 [대신맞이>초감제>신청귀]에서 군웅일월 청할 때 석살림을 하였다. [대신맞이>초감제>신청귀] 제차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신맞이>초감제>신청귀]

- 신청귀 > 당신본풀이 > 신청귀 (계속)
- 본향칭함 > 우봉지주잔 / 본향뿔 / 풀찌거리 / 즈손역가·소지원정 / 제비집
- 군웅일월 칭함 > 석살림
 - 신메움 > 바람탐
 - 놀판 > 덕담소리 / 서우젯소리 / 춤취움(즈취움)
- 신청귀

심방이 “이에 본향 두에 군농이여”라고 말명을 시작하니 소미가 역가상에 있던 바라를 공깃상 앞에 놓는다. 심방은 “일월이여~, 삼진~, 제석도~, 예 오리정 신청귀 쓸정미, 금바랑 옥바랑, 둘러받아 오리정~” 말명을 하며 바라와 신칼을 잡는다. 연물장단이 중판-중판감장-중판-중판감장-중판-중판감장-늦인석으로 이어지는 동안 바라를 치며 춤을 춘다. 바라점을 보고 다시 신칼점을 본다. 제상에 절을 하고 덕담소리로 이어진다. 소미가 “녁사로다 말이야 뒤야~ 아야~” 노래 하며 시작하면 심방이 말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덕담소리를 한다. 덕담소리가 시작하자 신앙민들은 신자리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한다. 15명 정도 나와 신자리를 어지럽게 돌아다니며 춤을 춘다. 심방이 “어야- 두야 어야두야 방아로 놀자”라고 서우젯소리를 시작하니 신앙민들이 받느소리를 한다. 그 뒤를 이어 신앙민이 서우젯소리를 계속 부른다. 이때 심방은 신청귀 제차를 말명을 하며 제장에 쌀을 뿌리며 마무리한다. 신앙민들이 노래하는 이의 이마에 지폐를 붙여준다. 심방은 신앙민들과 함께 춤을 추다가 소미에게 다음 제차를 말한다. 그 이후 추임새를 넣으며 박수를 치며 춤을 춘다. 신앙민이 음식을 들고 심방에게 가 먹이려고 하

96) 강정식, 위의 책, 234쪽.

니 심방이 안 먹는다고 하며 자리를 피한다. 신앙민을 쫓아간다. 결국 먹지는 않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춤을 춘다. 노래하던 신앙민이 노래를 멈추고 말을 하자 심방이 다시 서우젯소리를 이어간다. 이후 춤취움(즈취움)⁹⁷⁾ 노래는 부르지 않고 빠른 장단에 맞춰 신앙민이 대양을 치며 앞장서고 그 뒤 허리를 줄지어 잡아 빙빙 돌며 춤을 춘다. 마치 강강술래에서 꼬리따기와 흡사한 모습이다. 모두 즐겁게 웃으며 춤을 춘다.

2. 석살림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전승양상

석살림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덕담소리, 놀레소리, 서우젯소리, 담불소리, 니나니소리이며, 그 외에는 신앙민이 참여하는 경우 다양한 노래가 불려진다.

본 절에서는 덕담소리, 놀레소리, 서우젯소리, 담불소리, 니나니소리에 대하여 그 전승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덕담소리와 놀레소리의 전승양상

석살림 속에 나타나는 소리 중 덕담소리는 균웅덕담이라고도 한다. 석살림은 기본 균웅신을 위한 제차이기에 균웅덕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조아 오늘이여
 달(月)도 조아 이 오늘이로구나. 이 오늘로 놀자하니
 성도 언만 조을선가. 송도리도 내 츠지라.
 오늘 가저 널 가저 성도 언만 가실서나.
 월메(月梅)ㄹ뜯 춘향(春香)인 이도령(李道令) 방에서 놀고 가건만
 진싱(全生) 궂고 팔즈(八字) 궂인 신의성방(神房)은
 제석궁(帝釋宮) 신자리에서 양단(兩端) 어깨 추겨들고 이 오늘로 노는구나.

97) 자료에는 즈취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춤취움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어떤 새는 낮의 우며 어떤 새는 밤의 울리
저 새 이 새 나 닮은 새 밤낮 몰라 울고 가고
울고 오는 새로고나. 궁자궁 궁자궁 놀고가고 놀고오자. [이후 생략]⁹⁸⁾

기본적으로 덕담은 ‘오늘 오늘 ~’로 시작하는 게 보통이다. 심방마다 가사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작 부분만큼은 관용구화 되어 동일하다.

어제 오닐은 오닐이라
날도 좋구나 오늘이라. [요령]
덜도 좋다. [요령]
오늘이라
네일 장삼은 오늘이면
벼름산도 놀고 가자.
구름산도나 놀고 쉬자. [요령]
(중략)
군웅(軍雄)의 본관이 어텔런고
군웅에 시조(始祖)가 어덜런고
군웅 하르방은 천궁대왕(天宮大王)
군웅 할망은 옥지부인(玉眞夫人)
군웅 아방은 낙수계남
군웅 어멍은 서수계남 [요령] (이후 생략)⁹⁹⁾

덕담소리의 내용은 다양하다. 군웅덕담이라고는 하지만 군웅신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군웅본풀이, 조상신본풀이, 연유담음 등 내용이 한정적이지는 않다. 덕담소리로 본풀이를 구연할 경우에 그 방식이 ‘말+소리’로 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다른 소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방식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놀레소리의 자료가 많지 않아 그 전승양상이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단 놀레소리는 자주 구연되는 소리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자주 구연되지 않다보니 본풀이를 구연할 기회도 없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98) 현용준, 『사전』, 90쪽. (안사인 심방 구연)

99) 강정식 외, 『동북 시왕맞이』, 194쪽. (이중춘 심방 구연)

초감제 > 일월조상본풀이 > 김녕 송동지 영감 본풀이
(광정할망 본풀이)

[덕담]

덕사료다~ 만이야기야에~ 어어야~
어제 오닐 오닐 오닐이여.
이거 조상 거느리커메(말을 해 볼 테니) 잘 들엉 허소서라.
옛 제주도 제주시 넘어사난
구좌읍(舊左邑)은하도리(下道里)로구나.
송동지(宋同知) 영감(令監)이로구나.
얼굴이사 관옥이여
허풍선이 돼엿구나(몸이 풍채가 좋다는 뜻이라고 함)

딸 삼형제가, 사옴테다에~. 흐를날은, [요령] 송동지 하르바님, 조상님아~, 선흘끗(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지경의 숲.) 올라산, 상선(上船) 중선(中船), [요령] 하선(下船)을 거느리여, 선주(船主) 사고(沙工) [장구를 한 번 '덩'하고 친다.] 화정(火匠) 영감(令監)

[덕담]

거느리여 배를 테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선주님아 선주님아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딜로 갑네까 [이후 생략.]¹⁰⁰⁾

덕담소리의 본풀이 구연방식은 판소리에서 아니리와 창을 반복하며 부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행된다. 본풀이 내용을 모두 다 덕담소리에 얹어서 부르기가 수월하지 않아 이런 연행방식을 선택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내용에 따라 소리로 하느냐, 말로 하느냐가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사 앞부분이 '오늘 오늘~' 시작하는 소리가 또 있다. 놀레소리이다. 놀레소리는 삼공본풀이 구연 시 가문장아가기가 부모를 만났을 때 부르는 노래이다. 덕담소리와는 선율이 다르다. 덕담소리는 굿거리류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 하지만 놀레소리 장단은 9박 장단이며, 빠르기가 현저하게 느리게 불려진다. 장단이 느리다보니 음이 긴 장음이 많이 존재하고 그 소리는 시김새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 소리의 느낌이 서정적이다. 하지만 가사 앞부분은 동일하게 시작한다.

100)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3, 68쪽-83쪽.

삼공본풀이에서 가쁜장아기가 장님이 된 부모를 만나는 장면에서 부모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대목에서 놀레소리가 나온다. 심방은 삼공본풀이 구연시 이 대목에서 필히 놀레소리를 한다.

“들은 말 본 말 엇건 할오바님 할마님아, 살아난 말이라도 곱아봅서에-.”

그때엔, 할오방 할망, 곱는(말하는) 말이

“우리 살아난, 역대(歷代)나 님으건, 놀레로 혼 번 들어봅서. [창조가 ‘놀레’로 바뀐다.]

저우저~	오닐~ 오닐~, 오닐~이라헤~
날도 좋~안	오닐이며~
돌도 좋안~	오닐이라~
내일 장삼~	어제 오닐~
성도 원만~	가실쏘냐~
벼름산도~	넘고 가져~
구름산도~	쉬고 가져~
옛날 옛적~	간은 옷상실~
간이영성이곡~	우리 할망~ [이후 생략.] ¹⁰¹⁾

이후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노랫말에 엮어 노래한다. 다른 심방인 경우는 가쁜장아기도 자신의 이야기를 놀레소리로 구연하는 경우도 있다.

영 현 게, 눈은 당달봉스가 당허고, 당달봉스가 당허난, 이거, 땡기멍 주왓주왓(기웃기웃) 땡기멍, 동녕질허멍, 구멍도식 해연 살앗수다. 영 허난 게와시 잔치는 현덴 허난, 밥이라도 뽕끄랭이(배불리) 얻어먹어지카부덴, 오랏수다에-.”

설운~

[놀레]

오닐~ 오닐 오닐~이라.
 하오전 오닐 오닐 오닐이~라
 날도 좋~다 오닐이라
 아바님아에 어머님아
 나는 가쁜장이 아기워다
 아방 눈에 곱리나고(눈에 거슬리고)
 어멍 눈에 시찌나난(곱리나고와 같은 뜻)

101)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탐라문화연구원, 2009, 204쪽-209쪽.

오단 보난 마 파던 선비
 만나가근 춤(참) 날에
 거부제로 살아가난
 아방 생각 어떻 생각
 나아지난 계와시 잔치
 헤어가난 마지막엔
 아바님허고 어머님 오난
 반가운 지명에(김에) 수벨캄 수장남
 저 할마님 입식 못 먹게 헤어불렌
 이 밥 저 받은 소스삼경
 지폰 야밤 뒤엇수다
 [장구 치는 것을 멈추고 산대를 양 손으로 든다.]
 안산유기 도용칠반
 칠십반상 출려 놓앗수다
 아바님아 이 술 혼잔
 만읍소서(萬年酒日) 칠련쥬(千年酒日)네다
 말런쥬 네다 이테백이

떡다 남은 술입네다에-. [양손에 들었던 산대를 앞으로 던져 상잔점을 친다.]¹⁰²⁾



그 외에 놀레소리가 불리는 경우는 심방택 굿인 경우에 석살림에서 불린다. 기존 자료에는 기록된 것이 없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연실 심방택 5일굿』에서 놀레소리가 구연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닐 오닐 오닐이라 (본주가 오방신장기를 내려놓고 느린 장단에 맞춰 다시 춤을 춘다.)
 날도 좋아 오닐이라
 둘도 좋아 오닐이라
 이 놀레로
 간장 간장 못친 간장 (본주가 제상을 향해 절을 한다.)
 못친 시름 풀려놔서 (심방이 본주를 당주상을 향하게 몸을 돌려준다.)
 당주전에 (불청)메여 (본주가 당주상을 향해 절을 한다.)
 (불청)전성 그리치난 (본주가 당주상 앞에 고개 숙여 앉는다.)
 (불청/불청/불청)
 이 가슴에 맺친 것은 (심방이 본주 등을 쓰러주며 노래를 계속한다.)

102)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71쪽-172쪽.

풀러눙서
 (불청/불청/불청)
 노단 어깨 (불청)
 풀러눙서
 웬 어깨에 (불청)
 풀러눙서
 (불청)
 풀러눙서
 가십에
 (불청)
 위 나쁜거
 풀러줍서
 (불청)
 다 풀러줍서¹⁰³⁾

놀레소리가 석살림 제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를 수도 있다.¹⁰⁴⁾ 그리고 두린곳에서 환자가 쓰러지면 환자를 달래기 위하여 불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혼한 경우는 아니라고 한다.¹⁰⁵⁾ 하지만 하도리 분향당 당신본풀이 구연할 때는 놀레소리로 구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⁶⁾

세민황제본풀이에서도¹⁰⁷⁾ 동일하게 ‘오닐오닐 오닐이라. 매일장삼 오닐이면 성도 언만 가실소냐.’ 이렇게 앞부분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 음이 덕담인지 놀레인지는 알 수는 없다.

‘오닐’, ‘오늘’, ‘오느리’ 등 이 ‘오느리’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덕담소리와 놀레소리에 관용구화 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원천강 본풀이의 등장인물 이름이기도 하다. 관용구에 나타나는 ‘매일’, ‘장삼’도 원천강 본풀이와 세민황제본풀이 등장인물 이름으로 나온다. 강권용은 이러한 것을 제주

103) 『이연실 심방택 5일곳』 2014년 11월 7일에 [초감제>젯드리 앓혀 살려움>군웅일월 들>석살림>놀판]에서 연행된 놀레소리이다.

104) 2014년 10월 14일 서순실 심방 면담내용.

105) 2014년 9월 26일 김윤수 심방 면담내용.

106) 고순안 심방, 김윤수 심방, 서순실 심방이 모두 동일하게 제보하였다.

『고순안 심방 본풀이』에 하도리 분향당 본풀이가 채록되어있지만 덕담으로 구연되어있다.

10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611쪽에는 “오닐 오닐”로 시작하지만 『조선무속의 연구』 上 300쪽에 실려 있는 세민황제본풀이에는 그러한 관용구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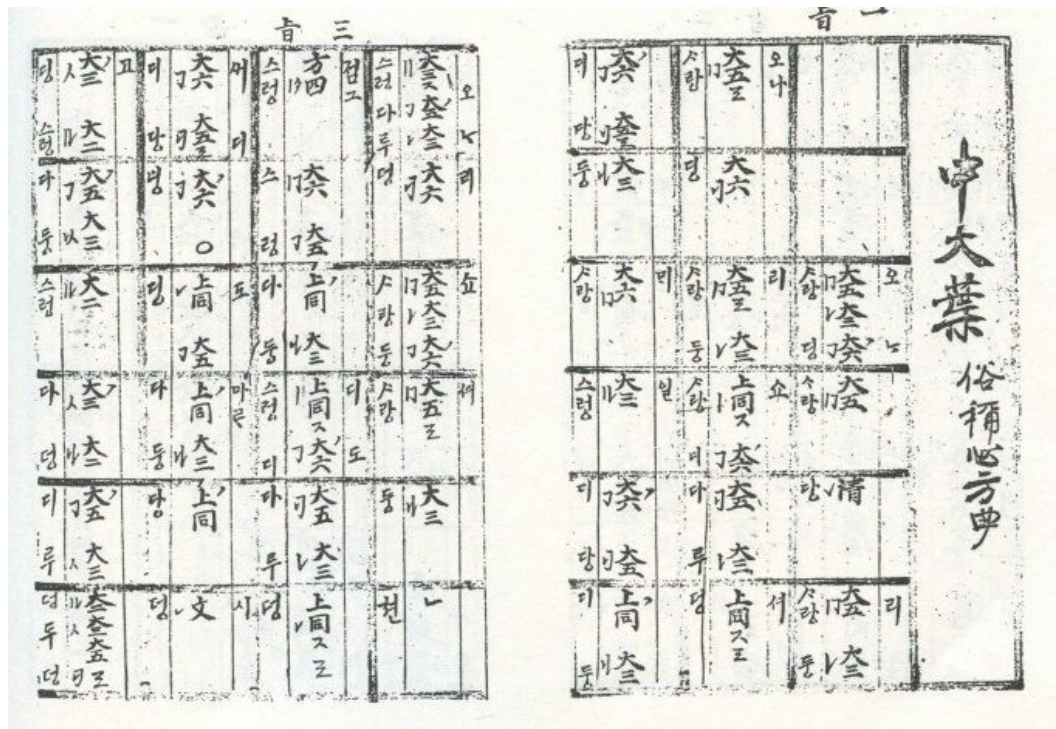


사진 6 『琴合字譜』 東大 琴譜 <심방곡>

도 본풀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신명들이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¹⁰⁸⁾

사진 6에서¹⁰⁹⁾ 보듯이 심방곡(心方曲)이라는 명칭과 “오느리 밭양 장삼 오느리 쇼서”라는 글이 기록되어있다.

조규익은¹¹⁰⁾ <북전>과 <심방곡>이 동일한 노랫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고려 조 속가들과 상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전>은 속칭 ‘뒤턴’이라하여 어전풍류의 대받침 속에 주인공인 임금에 대한 송축(頌祝)이나 송도(頌禱)의 표현이 들어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8세기로 들어서며 <심방곡>이라는 명칭으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하였다.

김기형은¹¹¹⁾ <심방곡>이 무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제주도 세민황제

108)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참조.

109) 『琴合字譜』,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진흥회, 1989, 118쪽.

110) 조규익, 「초창기 歌曲唱詞의 장르적 위상에 대하여 : <북전>과 <심방곡>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12집, 1994, 191쪽-210쪽.

111) 김기형, 「<오느리> 유형의 기원과 전승 양상」, 『한국민속학』 제30집, 1998, 5쪽-22쪽.

본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발생의 기원은 <오느리>가 먼저이고 그 이후 세민황제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느리>는 일본까지 전승되어 <오노리다 마쓰리>가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전승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단된 노래라고 한다. ‘송축의 노래’로서 상층의 애호를 받던 이 노래는 하층에서는 ‘축원의 노래’ 혹은 ‘기원의 노래’로서 지속적으로 불리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규는¹¹²⁾ <심방곡> 가사가 <오느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사에 따라 곡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심방곡>의 고행(古形)은 가사가 없는 곡이라고 하였다.

강경호는¹¹³⁾ <오느리>는 축원과 기원의 노래이며 무가에서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근거를 제주도 무가, 남해안 별신굿 제석노래, 전남 화순 곳의 선부리(조상굿), 진도 씻김굿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동일한 노랫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민황제본풀이, 군웅본풀이의 역사적 근거와 <오느리>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두 고려시대와의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오느리>가 임금에 대한 송축이나 송도의 표현이 들어 있는 것도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고려의 건국신화가 불릴 때 <오느리>이라는 무가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무가의 사용으로 당시보다 그 후대인 조선시대에 더 유행했을 수도 있다. 그 노래와 이야기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제주도 무가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해본다.

2) 서우젓소리, 담불소리, 니나니소리의 전승양상

석살림에서 서우젓소리가 불리는 경우는 본주의 집안이 바다와 관련이 있는 직업이거나 혹은 그러한 조상신을 모시는 경우에 불린다.

서우젓소리는 두 가지 장단을 가지고 있다. 굿거리류와 자진모리류로 나눠 서

112) 이상규, 「심방곡 연구」, 『온지학회』 제5집, 1999, 139쪽-155쪽.

113) 강경호, 「‘오느리’노래의 무가적 전통과 「심방곡」과의 관련 양상」, 『영주어문』 제17집, 2009, 5쪽-35쪽.

우젯소리, 좇인서우젯소리로 말한다. 그 노래의 토리가 경서토리로¹¹⁴⁾ 보는 경향이 많다.

종금종금 내려사난, 못텐 늬으 한사공(韓沙工)이 밀리더라 돛 떠나라, 어기어차 살갱기 소리에 (중략)

서우제 닻감기로 노뎀을 허난, 그때엔 아기씨가 해뿌리길(공수하길) (중략)¹¹⁵⁾

본풀이 사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살갱기소리’는 닻감기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서우제 닻감기’도 닻감기소리이다.¹¹⁶⁾ 하지만 서우젯소리와 닻감기소리 둘 다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주도 어업요 중에 서우젯소리가 같이 불리는 민요는 ‘멜후리는소리’이다. 이 소리는 멸치잡이 작업 중에서 그물을 당기는 작업, 고기를 털어내는 등 작업의 전 과정에서 불려진다. 멸치잡이 어업요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다. 멸치잡이 어업은 ‘그물잡’이란 어로 공동체에 의해 어업이 행해진다. 그물잡은 배와 그물을 함께 준비하여 공동 작업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하는 노동공동체이다. 풍어 기원의 ‘그물크사(그물고사)’나 ‘영감굿’을 함께 지내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물을 후리며 잡아당기는 작업이 거의 끝나게 될 때쯤 ‘서우젯소리’로 연결하여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¹¹⁷⁾ 제주도에선 닻감기소리가 조사된 바가 아직은 없다.

114) 경서토리권은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서북부, 경기도 북부 지역이 해당되는데 경서토리는 경기도도토리(경토리)와 수심가토리(서도토리)로 나뉘어 있다. 음악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토리는 구성음이 솔, 라, 도, 레, 미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음색은 부드럽고 유장하며 서정적이다. 장단은 세마치나 굿거리장단을 쓰고 빠른 속도로 노래하는 것이 많다. 수심가토리(서도토리)는 구성음이 레, 미, 솔, 라, 도로 되어 있고 이중 레, 라, 도가 주요음이다. 창법상의 특징은 떠는음은 얇고 잘게 떨며 콧소리를 쓰는데, 큰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콧소리를 섞어서 잘게 떨어야 한다. (<http://100.daum.net> 다음 백과사전 참조.)

115) 강정식 외, 『동북 시왕맞이』, 178쪽-179쪽.

116) 모든 심방과의 면담에서 석살림에서 왜 서우젯소리를 부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여러 가지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김운수 심방은 ‘살갱기 소리’는 장단을 맞추는 소리라고 설명하였다. 서순실 심방은 닻감기소리를 왜 하는지에 대하여 바다에서 닻을 감아 올리듯이 소리로 신을 모시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순안 심방에게 멸치잡는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멸치잡을 때 서우젯소리를 하는지를 물었는데 안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때는 닻감기소리를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살갱기 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닻감기소리와 서우젯소리는 다른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우젯소리가 무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17) <http://folkency.nfm.go.kr>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한국민속문학사전 참조. (집필자 허남춘)

여기서 서우젯소리가 무가인가 민요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민요로써의 자리매김을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한 주목할 점은 공수를 했다는 점이다. 서우젯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인 것이다.

서우젯소리는 기본적으로 무속에서 선왕신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불리지만 연유담, 조상신본풀이 등의 내용으로도 불린다. 서우젯소리는 민요로도 다양한 구연현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능 또한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성격을 단순히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능의 공통적인 모습을 찾아 서우젯소리의 대표적인 성격을 유추할 수는 있다. 민요로써의 서우젯소리의 전승양상을 보아야 무속에서 서우젯소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우젯소리의 구연현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속의례의 현장, 노동의 현장, 일상생활에서 전승되고 있는 만큼 그 사설의 내용도 다양하다. 무속의례에서는 서사적 내용을 가지고 있고, 노동요에서는 노동의 방법, 풍요기원, 신세한탄 등 다양한 사설의 내용이 전승되고 있다.



서월 남산 벽자골에서 허정승 아들 일곱성제 솟아나니, 큰아들은 백두산을 츠지하고, 셋아들은 태백산을 츠지하고, 셋째아들 충청도 계룡산 츠지하고, 다섯째아들 지리산을 츠지하고, 요섯째아들 목포 유달산을 츠지하고, 일곱째 아들 제주 한로산을 츠지하고, 정원 가민 영감선왕(令監船王)으로 놀고, 대정가민 도련선왕으로 놀고 꿩밧긔 각시 선왕으로 놀고 선을긔 황새왓 돌허리아기씨선왕으로 놀고, 물이 싸민 강변에 놀고, 물이 들민 수중에 놀고, 산으론 가민 아은아옴 골머리 앞 영실 백록담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오백장군 존소낭밧 가문머들 한머를 조아하고 해강으론 난여 든여 숨은여 조아하고 일만줄수 삼천어부 어장촌에 놀고, 낮윈 연불 밤윈 등불에 놀고, 망만 부뜬 세페리에 깃만 부뜬 도폭에 깧만 부뜬 미토리 혼 뽐 못흔 곱방대 삼동초를 피어 물고, 수시떡 수시밥 조아하고, 남도리 앞에 감은 족바리 힌 족바리 뇌발공산 좌머리 우머리 좌비피 우비피 열두신빼 조아하고, 씨윈석석 헛간이나 더운 설 단설 조아하고, 자시거리 동이거리 케기도 동이로 술도 동이로 술도 동이로 받아 오던 영감참봉 야체 시군줄 호터지민 열너동서 모다지민 일곱동서 진바당 진소리 즈른바당 즈른소리 어야두야 살강깃 소리로 일천간장 풀리던 선왕참봉이웨다.¹¹⁸⁾

118) 현용준, 『사전』, 93쪽-95쪽.

위의 내용은 석살림에서 서우젯소리로 선양참봉본풀이를 한 것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남산 떡자골에 허정승이 살았는데 아들이 일곱형제이다. 이 일곱형제중 막내가 한라산에 와 논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신의 본을 푸는 서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린곳에서는 환자의 몸에 들어간 도깨비 신의 본도 풀고 나서 환자의 일생도 푸는 가사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다.

므첫구나	강첫구나	<청취불능>	므첫구나
아무래도	말고야말일	밤도영칭	낮도영칭놓서
어떤조상이	놀고싶구나	어떤일월이	놀고싶구나
이집안	뭍고뭍은	일월이여	산신이여
불도할망	김씨할망	뭍고뭍은	일월이놓서
선씨불도도	놀고싶소	김씨불도도	놀고싶소
조상간장도	열려나주고	즈순간장도	열려나줍서
돈아돈아	말모른돈아	악마ㄱ뜬	이금진들랑
설운애기	부모일찍조실흐난	좋은금진	벌젠혜연
저경기도	서울지멘	마장동지멘	저공장가근
기숙사에서	생활흐고	시간밭떡고	시간좁자고
붉은구실에	푸린구실	노린구실에	열두구실
친구벗종고	고향멀고	부모형제	다버려두고
어떤사름	팔즈기좋아	양친부모에	고향집사느고
고동혹교	대혹나왕	사회에서	출세흐고
월급생활	직장생활	일친간장	다므첫구나
하늘ㄱ뜬	부모아버지	<청취불능>	뒤엇구나
김씨할망	메와옴던	선왕일월이	놀고야씨져 ¹¹⁹⁾


이렇게 환자의 일생을 심방이 노래로 풀면서 곳을 하면 본주도 환자도 단골들도 모두 눈물을 흘린다.

서우젯소리의 노동요인 아웨기나 노동유희요에서는 이런 서사성이 짙은 가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간혹 가창유희요에서는 고정화된 영감본풀이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 전승되는 경우도 있다.

119) 고헌민 외, 『추는곳』, 75쪽.

어야 ~ 두야	방애로구나
높은 산의랑	앉아우는 세는
벼름이 불~까	근심이로구나
야픈산의 안진새는	비가올까 근심이라
내곶집의 안진새는	내가 느려 근심이라
바당곳에 안진새는	절이지칠까 근심이라
남문을 열어서	바래를 치이니
계명산천이	다 붉아가네
새별요간도	장단을치네
[청귀불능]	간들간들흐네
호셋님은	헤뜩헤뜩흐네
담고냥은	베롱베롱 ¹²⁰⁾

노동요 아웨기소리에서는 한 편의 서정시를 노래하듯 불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노동요의 특성을 살려 밭 땀 때 또는 어업에 관련된 동작이나 시간 등을 노래하는 게 보편화 되어 있다.



어야두야	병애로구나
검질짓고	골너른 밭디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아침사텐	일시작사텐
정심사텐	배부른사텐
저녁사텐	일뜨침사텐 ¹²¹⁾

어야디아	방애로구나
검질짓고	골너른밧디
소리로나	매어나보자
앞명애야	들어나오라
뒷명애랑	나고나가라
검질짓고	골너른밧디
검질줍이랑	즈직즈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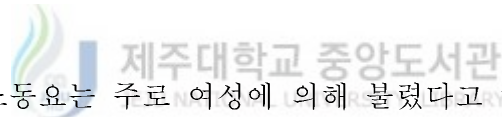
120)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 민요 해설집』, 문화방송, 1992, 57쪽-58쪽.

121) 문화방송, 위의 책, 96쪽.

날도더웁고	더운날에
소리로나	매어나보자
허기야디야	방아로구나 ¹²²⁾

우리야배는	잘도나간다	
놈의배는	못도나간다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화장아이야	허릿디밋디	
물때점점	늦엄더라	
요네상짜	뿌러나지면	
가시나무	씨졌더나	
요벤드레	끊어나지면	
인천항구	덕판목이	씨졌더나
요네말판	느려나지면	
베니다가	씨저선가	

(중략)¹²³⁾



하지만 제주의 노동요는 주로 여성에 의해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가사에 제주 여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삶이었음이 담겨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신세한탄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간장간장	못힌간장	나놀래로	풀령갑서
전성곳언	구월에나난	구엿꼳도	내벗이로다
낭지여도	옷을주멍	물지여도	밥을주리
무신날에	날을나고	일천간장	다씩이는고
우리어멍	날날적에	남난날에	날낱건만
간다간다	나는간다	넘을두고	나는가리 ¹²⁴⁾

하지만 어업의 경우 물질 이외에는 남성 중심의 노동이고, 배를 타고 나가 풍랑을 만나 많은 남성들이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무속의례에서

122) 문화방송, 위의 책, 177쪽.

123)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178쪽-1179쪽.

1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입석재 채록 한국 구연민요 자료집』, 민속원, 2004, 611쪽.

보이는 주술성을 담아 풍요와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경우도 많다.

(중략)

치를잡아	가실적의	서낭일월이	앞을삼아
보기좋은	여곳딜로	그물가게나	홍여줍서
저바다를	배질홀적의	서낭일월을	앞삼으고
한배한내	선원들이	열두동무를	거느리어
무쇄술에	[아이고좋다]	요선원들을	앞세우고
서낭일월	힘을믿어	돈을벌라고	나가는다
앞밭로	바다를해천	뒷밭로	허우지명
용궁서낭	앞삼고	고기잡이를	나가는다
하늘은보면	어디곳디도	비바람은	쳐드는데
믿어가는	서낭일월	우리열두	동무를살라
고개고개	넘어오는	문둥놀을	자치면서
불쌍하신	우리어부	살려나	주옵소서 ¹²⁵⁾

이와 같이 서우젓소리의 문학적 특징은 민요에서 드러나는 노동·가난 등 고된 생활에서 오는 삶의 비통성을 노래한다는 점과 서정성을 노래한다는 점 등 공통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을 노래하고, 신을 놀리기 위한 풀이 사설은 서우젓소리의 독특한 문학적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민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¹²⁶⁾

문학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서우젓소리의 성격은 구비문학이 가지고 있는 서사성·서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구연현장에서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사설들이기 때문이다. 구비문학은 구전되는 문학이다. 기록이 되면 그것은 이미 기록문학으로 간주되어 구비문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또한 구비문학은 현장성이 강조되며, 삶의 의식을 대중화시키고, 예술성이 반영물되어 있다. 서우젓소리는 이런 구비문학의 성격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우젓소리는 기능에 따라 그 성격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노동요의 기능, 노동유희요·가창유희요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서

125)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 민요 해설집』, 문화방송, 1992, 268쪽.

126) 변성규, 『제주도 서우젓소리 연구』, 제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34쪽.

우젯소리의 공통적인 성격은 나와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여 그 기능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무속의례에서의 기능은 신을 놀려 즐겁게 하여 신도 인간도 모두 즐거운 상황에서 뭉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서우젯소리의 공통된 성격은 그 무언가를 즐겁게 놀린다는 것이다. 신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즐겁게 놀려 신명을 발산하게 하는 것이 서우젯소리의 대표적인 성격인 셈이다.

제주민의 비통한 삶을 노래를 통해 극복하고 맺힌 한을 풀어 신명을 획득하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해온 제주의 대표적인 민요라 할 수 있다.¹²⁷⁾

담불소리는 본주 조상이 스님이거나 경문쟁이, 책불일월, 삼승할망, 불도관련(집안에 네공전할마님을 모시는 경우) 등 불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졌던 조상신을 모시는 경우에 불린다. 삼승할망은 마을에서 산파 역할을 하던 사람을 말한다.¹²⁸⁾ 후렴구가 ‘나무아미타불아’로 되어 있는데 불교에서 염불인 ‘나무아미타불’과 비록 선율에서 약간의 변모는 있지만 동일한 것이다. 불교가 무속에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⁹⁾ 담불소리는 늦인담불소리와 담불소리가 있다. 담불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후렴구 ‘나무아미타불아’를 진양조류로 먼저 한 번 부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차 말명을 넣고 여러 구절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 무가에서 진양조류의 장단이 보이는 경우는 유일한 경우다. 진양조는 6박씩 4개(6소박 4박)를 묶여 있는 장단이다. 우리나라 장단 중에서는 가장 느린 장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단을 진양조처럼 치는 것은 아니다. 잘게 쪼개서 빠르고 약하게 친다. 특별한 가락이 있는 것도 아니다. ‘둥둥둥둥둥둥~’ 북과 장구로 한 박만 계속 친다. 소리는 느리나 장단은 빠르게 느껴진다. 장단이 마치 득경을 할 때와 비슷하다. 하지만 소리는 그렇지 않다. 받는소리는 소미들도 다함께 부르기 때문에 유장하게 느껴진다.

127)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7, 314쪽.

128) 삼승할망은 제주도에서 지역적으로 함덕리에 제일 많이 분포하였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 산파가 없으면 이사를 가서 살기도 했다고 한다. 함덕에서 곶을 하게 되면 담불소리를 꼭 해야 하고 많이 불러졌다고 한다. 2014년 9월 26일 김윤수 심방 면담 내용.

129) 변성구, 「제주도 민속에 나타난 불교의 양상」, 『濟州佛敎』 제8호, 제주불교범우회, 1984, 151쪽.

담불 나무아미 탐불아 [樂巫들 장고치며 북창] 나무아미 탐불아
 어진 어진 조상님덜 [樂巫들 後斂唱] 나무아미 탐불아
 일천간장 풀러놓서 [樂巫들 後斂唱] 나무아미 탐불아 [이하 담불곡으로 조상본풀이를 창하고
 후렴 (나무아미 탐불아) 축원함.] 130)

나~무아~미담~불아~
 천신불도 (불청)할마님 칠원성군 월일광 (불청) 신수뽕서에 (심방이 계상을 향해 반절을 한다.)
 나~무아~미담~불아~
 (불청)
 나~무아~미담~불아~131)

위 두 곡이 모두 후렴이 동일한 것을 봐서 늦인담불소리이다. 『사전』에는 담불 소리가 채록되지 않았다. 이후에 바로 담불소리가 불린다. 담불소리는 굿거리류 장단으로 이루어졌고 받는소리는 늦인담불소리와 다르게 ‘어어어어 담~불아’로 되어있다.



담불아
 언메 단메도 받아 갑서
 어어 히어 담불아
 위성 삼성 돌레 월병
 어어 히어
 안약게 자낙게 돌레 월병
 어어 히어 담불아
 청금체도 받아 갑서
 어어 히어 담불아
 개랄안주 받아 갑서
 어어 히어 담불아
 배 능금 대유지 건실 건감
 어어 히어 담불아 (중략)132)

130) 현용준, 『사전』, 92쪽.

131) 『이연실 심방택 5일굿』 2014년 11월 8일에 [불도맞이>메어들어 석살림>놀판]에서 연행된 ‘늦인담불소리’이다.

132)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667쪽. 군웅만관 제차에서 불린 담불소리이다.

담불소리 역시 무가에서만 불리는 것은 아니다. 서우젯소리처럼 민요로 많이 불린 것은 아니지만 검질매는소리로 불린 것을 보면 민요로의 전환 과정에서 멈춘 사례가 아닌가 추정한다.

어허어 담벌

어허어 담벌

담벌 불령 새양가자

어허어 담벌

(중략)

이내 몸은 다늠어지고

어허어 담벌

산천초목은 푹릿푹릿

어허어 담벌

잘도젊아 오는구나

어허어 담벌

어젯날은 청춘이여

어허어 담벌

오늘날은 백발이여

어허어 담벌

(중략)¹³³⁾



검질매는소리의 담불소리는 <상사소리>, <용천검>, <아웨기>, <홍애기>, <더림소리> 등과 더불어 표선면 성읍리와 성산읍 삼달리에서 불렸다.¹³⁴⁾

니나니소리는 석살림 제차에서 불린 기록은 없다. 단지 심방 면담을 통해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니나니소리는 [이공맞이>매어듬] 제차에서¹³⁵⁾ 매어들 때 불려졌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노래 가사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 성주풀이할 경우 강태공서목시 대목에서 불리긴 하나 기록된 것은 없다. 기록으로 된 것은

133)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 민요 해설집』, 문화방송, 1992. 162쪽-164쪽.

134)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7, 67쪽.

135) 현용준, 『사전』, 186쪽.

송당리 신과세제의¹³⁶⁾ 경우이다. [초감제>오리정 신청께]에서 연행되었다.

(중략)

애게마을 상마을 궁예청 신에청 불러들이자
무동애기 함상 불러다 ‘난니로 난니로’ 어서
춤놀이 뺨놀이 한다. 일계석 이계석으로
피리단자 불라. 옥단자 불라.

“나무아미 탐불야”

“나무아미 탐불야”

“니나나니 난니나”

“니나나니 난니나”

“니나나니 난니나”

“니나나니 난니나”

“니나나니 난니나”

“니나나니 난니나”

“니나나니 난니나” (중략)

이후 “니나나니 난니나”를 46행을 반복한다. 그 외에 별다른 가사는 보이지 않는다. 담불소리를 잠깐하고나서 니나니소리가 구연되었다. 가사가 없는게 특징이다.

니나니소리와 관련하여 김주호의 <불림>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김주호의 <불림>은¹³⁷⁾ 경서도 지역에서는 민중들이 축제를 벌일 때 춤을 추며 말로 불림을 하고 춤을 춘다. 서도소리 명창 김주호가 불림을 하고 삼현육각의 구음을 부르며 춤추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다. 평안도 지역의 불림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구음은 서도소리제이다. 서도 특유의 기세등등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 다라고 음반 속지에 이보형이 설명하고 있다.

들어가라 쉬-에취 에취

136) 문무병 외, 『북제주군 송당리 조사보고서』,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북제주군 추진협의회, 2004. 246쪽. 1982년 조사한 자료이며, 송당리 신과세제(음 1월 13일)이다. 박인주 심방이 구송하였다. 전사 자료에 제차명이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다.

137)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 12, 한국의 종교음악(2) [하룡남 불교음악], 원반 : Victor KJ-1083-A(KRE 148) 녹음은 1936년 3월 4일에 한 것이다.

심양강 당도허니
 백락천이 일거 후에
 비파성이 끊어지구
 적벽강 돌아드니
 삼산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는
 이태백이 노던 데요
 월락오대 깊은 밤에
 한산사 쇄북 소리
 백선에 등등
 나니나 나나네 네에네
 난니나 노니네노
 나나나 나나나 나니나
 난나나 나니나 나나해나니나
 니나네 나나나 니나노니네
 나나나해 니나나난나

들어가라 쉬-에취 에취
 산은 첩첩 천봉이요
 물은 술렁 소리로다
 북향산 찾아가니
 진주포 좋거니와 상호남 더욱 좋다
 해만 지면 쿵명
 니나노 나니나 니나나
 나니나 나니노 나나
 나나니니나노 니나해해
 니나나니나 나나나나니노
 니나니나 나나 얼쭈 좋지
 쉬~
 녹음방초승화시
 나나나 나나난나해 나나해 니나노
 나나나 나니노 나나나
 니나해해 니나나 나나나
 니나나 니나네 나나나



즉 여기서 ‘니나나’의 소리는 삼현육각을 구음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선율악기의 소리를 구음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이고 불교음악으로 분류되어 있다. 선율악기의 악보의 경우에 사진 6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노래가 사, 장단, 구음 순서로 표기되어있다. 이 구음이 “스랑 덩 스랑 당 스랑 둥~” 거문고의 소리를 구음(口音)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선율악기들도 표기를 한다. 이는 민요의 받는소리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IV. 석살림의 특징과 분석

석살림은 신을 즐겁게 놀리는 제차이다. 그러나 석살림 제차의 위치가 과연 놀판으로 신을 놀려도 되는 위치일까가 의문이다. II장에서 그 연행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 (1) 초감제의 신청계에서 군웅일월을 청하여 놀릴 때 벌임
- (2) 초감제와 맞이곳 사이에서 독립제차로 벌임
- (3) 맞이곳의 마지막 제차로 벌임

위의 제차가 연행되는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은 특정신인 군웅일월조상신을 위한 것이다. (2)는 초감제에서 청한 모든 신을 위한 것이다. (3)은 맞이곳에서 신과 군웅일월조상신을 위한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1)과 (2), (3)으로 나눌 수 있다. (2)는 초감제 마지막 제차로 석살림, (3)은 맞이곳의 마지막 제차의 석살림으로 동일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석살림의 내용을 봐야 할 것이다.

석살림 내용을 보면 군웅본풀이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군웅본풀이는 오히려 생략되거나 혹은 요약본으로 불리지고 연유담음 내용과 조상신본풀이 내용이 더 많이 불리진다.

『동북 시왕맞이』에서 연유담음의 내용이 조상신인 광청할망을 놀리기 위하여 곳을 한다고 하니 조상신본풀이가 많이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연실 심방택 5일곳』의 경우는 집안에 특별한 조상신이 없으니 연유담음 내용이 더 비중이 크다. 그와 더불어 <초공본풀이>가 마치 조상신본풀이처럼 불렸다. 또한 본주와 관련하여 오방신장의 내용도 들어있다.

석살림이 군웅신을 위한 제차이지만 군웅신의 성격이 조상신의 으뜸신이기에 때문에 다른 조상신을 다 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석살림 제차에 조상신본풀

이가 구연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상신의 성격이 또 본주와 관계가 밀접하다보니 다시 본주가 굿을 하게 되는 연유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삽입이 된 것이다. 이처럼 군웅신이 조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다시 조상신이 연유담음 내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석살림의 내용이 풍성롭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연행방식이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심방, 본주, 신앙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1)의 경우는 좀처럼 설명하기 쉽지가 않다. (1)의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굿 전체의 초감제에서 연행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맞이굿 초감제에서 연행되는 경우이다.

공동체신앙으로 『동북리 신과세제』의 석살림은 두 번째 경우로 대신맞이 초감제에서 신청계 제차에 들어서 연행되었다. 첫 번째 경우는 연행하지 않았고 독립된 석살림 제차도 없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경우는 그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다. 『동북 시왕맞이』의 경우만 봐도 오히려 석살림 제차를 거듭 반복하여 연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

『동북 시왕맞이』에서 조상신본풀이 구연된 제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³⁸⁾

표 3 광청할망본풀이 구연 상황

연번	제차	구연자	연물	자세
1	초감제-연유담음	서순실	말미장구	좌창
2	초감제-젯드리	서순실	서우제	입창
3	초상계-신청계	이중춘	말미장구	좌창
4	석살림-신메움	고복자	-	입창
5	석살림-떡담	이중춘	떡담	입창
6	석살림-연유담음	강순선	-	입창
7	석살림-떡담	강순선	떡담	입창
8	시왕맞이-초감제-신청계	서순실	서우제	입창
9	군웅만판-떡담	서순실	떡담	입창

조상신본풀이를 구연할 수 있는 제차는 연유담음, 신청계, 석살림, 만판으로 정

138) 강정식 외, 『동북 시왕맞이』, 21쪽, 정리된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였다.

리할 수 있다. 연유담음에서 조상신본풀이가 구연되는 것은 본주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청괘에서 조상신본풀이가 구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신들도 본풀이가 있는데 왜 조상신만 구연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신들은 독립된 제차로 본풀이 구연이 가능하지만 아직 조상신본풀이는 독립된 제차로 구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상신본풀이가 독립된 제차처럼 구연되는 제차는 석살림인 것이다. 하지만 그 초차도 완전한 독립된 모습은 아니다.

표 2의 3번 [초상계-신청괘] 대목을 확인하여보면 일월조상 대목에서 조상신본풀이가 구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습은 석살림이 [초감제>젯드리 앓혀 살려움] 제차와 얼러서 구연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단지 연행방법이 입창이나 좌창이냐만 다를 뿐이다.¹³⁹⁾

석살림 제차의 목적은 조상신본풀이 구연될 수도 있다. 본주 중심의 곳을 하기 위함이다. 석살림 제차가 기본적으로 열린 구조로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석살림 제차의 위치가 다양하게 된 것은 신앙민이 조상신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곳은 결국 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신앙민을 중심으로 연행되기 때문이다.

『추는곳』에서 석살림의 역할은 환자의 몸에 든 잡신을 표출시키는 것이다. 환자의 몸에서 잡신을 들어냄으로써 환자가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석살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일 것이다. 『이연실 심방택 5일곳』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연출된다. 영계울림으로 본주에게 오방신장이 표출된 경우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본주가 환자였던 것은 아니다. 석살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서우젯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석살림 제차에 또 다른 제차가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푸다시의 삽입이 그 예이다. 푸다시는 잡귀가 붙지 않게 해달라는 의례인데 치병의례의 하나이다. 이는 본주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되는 것이다.

석살림 제차는 간단히 보면 신메움과¹⁴⁰⁾ 놀판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139) 석살림은 전승양상에서 모두 산곳으로 연행된 것만 살펴보았는데 심방 면담을 통해 산곳이 아닌 앓인곳으로 연행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에는 말명 위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석살림 제차는 산곳, 앓인곳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윤수 심방, 강대원 심방, 고순안 심방, 서순실 심방 모두 동일하게 제보하였다.

풀이를 가지고 있고, 짧게나마 놀이에 해당하는 성극의례가 보인다.

그리고 어느 제차에도 없는 놀판이 있다. 놀판에서는 정해져 있는 소리만 부르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놀판에서 불리는 소리들은 본풀이와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명확하게 해명을 할 수는 없지만 본풀이와 관계에서 삽입된 것이다. 덕담소리인 경우는 군웅본풀이와 관계에서 시대적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우젯소리, 담불소리 등은 조상신의 성격에 따라 불려지는 것으로 봐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서순실 심방은 요즘은 굿 구경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마을 사람 중 누가 굿을 한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왔다고 한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야 하고 바다에 가서 물질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굿 구경을 못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녁에 신앙민들이 오면 심방은 석살림 제차를 그 시간에 맞춰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저녁 시간에 석살림 제차를 하다 보니 더욱 흥겹게 놀판을 연행하였다고 한다.¹⁴¹⁾

이러한 모습은 당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곳에서 본향신을 청한 뒤 덕담소리와 서우젯소리로 제장의 분위기를 돋우면 신앙민들이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때 심방이 소리를 멈추고 유행가로 넘어간다. 그럼 신앙민들은 심방의 몸 에 돈을 꽂고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그리고 신앙민 중에 한 명이 나와 다른 유행가로 이어간다. 그렇게 한 시간이 넘도록 놀판을 연행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공동체신앙 전승양상과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마을 축제이고 나를 위한 축제이다. 신자리에 나와 노래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잠시나마 심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소통이 이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인동락(神人同樂)인 셈이다.

굿은 결국 산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연유 내용이 노래 가사에 많이 들어 있는 것이다.

석살림 제차는 심방이 처음 굿을 배울 때 선배 심방들에게 굿을 배울 수 있는

140) 석살림에서 신메움 제차 중 상축권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방 면담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신에게 담배를 권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종교의례에서 향을 올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김윤수심방, 강대원심방, 고순안심방 모두 동일하게 제보하였고 그 의미는 음식을 먹고 잠시 정신을 놓은 신들을 깨우고 정신차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하였다.

141) 2014년 10월 14일 서순실 심방 면담내용.

자리였다고 한다. 지금은 굿을 배우는 심방이 없어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아주 흔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새내기 심방이 있으면 독립된 제차로 석살림 굿을 해보라고 하여 잘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가르쳐주었다고 한다.¹⁴²⁾ 석살림 제차가 무속의례에서 교육의 장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석살림 제차에서 나타나는 소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덕담소리는 조상신을 놀릴 때 주로 불린다. 담불소리는 네공전할마님을 집안에 모시는 경우나 집안에 삼승할망이 있는 경우 또는 책불일월을 모시는 경우에 그 조상신을 놀릴 때 불린다. 서우젯소리는 영감, 즉 도깨비를 놀릴 때 주로 불려진다. 소리의 선택은 본주의 집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덕담소리는 균웅신, 서우젯소리는 선왕참봉신, 담불소리는 삼승할망 관련 신을 집에 모시는 경우(네공전할마님)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전승양상을 보면 균웅신, 선왕참봉신, 불도할망신, 그리고 조상신 혹은 연유담음, 심방택 굿에 경우는 초공신 그리고 당신본풀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조상신은 어느 소리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초공신인 경우는 심방 입장에서 볼 때 조상신일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신청께 제차에서 초공신을 신메울 때 초공본풀이를 해야 맞는 것 일텐데 그렇지 않고 균웅일월조상 신메움할 때 석살림 제차 안에 초공본풀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심방 입장에서는 초공신이 조상신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소리의 연행양상은 받는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그 양상이 달라진다. 받는소리가 있는 경우는 일반 민요와 다르지 않게 연행된다. 그러한 경우가 서우젯소리, 담불소리가 해당된다. 전파력이 매우 높아 다른 전승현장을 가지게 된다.

받는소리가 없는 경우는 놀레소리, 덕담소리, 니나니소리 등이다. 놀레소리는 전승되어진 기존 자료가 삼공본풀이를 제외하면 석살림 제차에서는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이연실 심방택 5일굿』에서의 전승양상만 보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많이 불리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어떠한 전승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놀레소리의 가사 내용을 보면 본주의 연유담음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덕담소리의 전승양상 특징은 본풀이 구연시 판소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142) 김윤수 심방, 고순안 심방, 서순실 심방, 강대원 심방 모두 동일하게 제보하였다.

있다. 즉 아니리와 창 의 형태로 구연된다. 하지만 판소리처럼 이야기의 흐름과 대화, 설명 등으로 인해 아니리와 창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구연자에 따라 구연상황에 맞춰 호흡, 기억력 등 따라 정해져 있는 틀이 없이 구연된다.

이렇듯 본풀이의 구연방식이 다른 이유는 받는소리의 존재유무에 따라서이다. 받는소리가 존재할 경우 덕담소리와 같은 방식으로는 본풀이 구연이 어렵다. 받는소리는 구연자 외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본풀이 내용을 그대로 가사에 엮어 구연하기란 매우 힘들다.

서우젯소리와 같이 받는소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 구연자 외 신앙민들이 참여하기가 쉽고 소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서우젯소리가 제주도 전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도 또한 석살림이 열린 구조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석살림에서 놀린다는 것은 내가 논다는 것보다 대상이 논다고 생각을 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우선 심방이 직접 노래를 하고 춤을 추니 스스로도 논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신앙민이 신자리로 나와 춤을 추며 놀기 때문에 신앙민도 이때만은 신과 같이 노는 것이다. 석살림은 굿 제차에서 신앙민이 실제로 신들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신들과 성스러운 교섭을 하는 장인 것이다.¹⁴³⁾ 이와 같이 굿은 신과 신앙민 그리고 심방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또한 각자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다. 신은 신자리에 좌정해 있고, 심방은 신앙민과 신의 중간자 입장으로 신앙민의 이야기를 신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있으며, 신앙민은 자신의 자리에서 굿을 관람하며 참여한다. 제차에서 신앙민의 역할은 참관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석살림 굿에서만 중간자인 심방을 통하지 않고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143) 고희광민 외, 『추는굿』, 264쪽.

V. 결론

이 논문은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에 대한 연구이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제차 하나만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번 연구로 제주도 무속에서의 석살림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논의가 영성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본다.

석살림은 신을 모셔 제상(祭床)에 앉히고 음식을 권하고 나서 향축을 올리고 술을 권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놀며 기원하는 제차이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제차이다.

II장에서 『사전』에 산만하게 기록되어진 석살림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위치에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1) 초감제에서 신을 청할 때 군웅일월조상을 청하여 진행되는 경우
- (2) 초감제와 맞이굿 사이에서 독립된 제차로 진행되는 경우
- (3) 맞이굿에서 마지막 제차로 신을 매어들어 진행되는 경우

(1)의 경우는 [초감제> 젓드리 앉혀 살려움] 제차에서 나타나는 석살림이다. 심방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신맞이, 초상계, 젓상계, 제오상계, 등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맞이굿 초감제 신청계 동일한 대목에서도 할 수 있다. (2)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연이어 여러 번 진행할 수도 있다. (3)의 경우는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등에서 마지막 제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III장에서 실제 전승 현장에서도 그러한지를 확인하였다. 전승양상으로 개인신앙과 공동체신앙으로 나뉘 살펴보았다. 개인신앙에서는 세 가지 진행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공동체신앙인 경우는 (1)초감제의 신청계에서 군웅일월을 청하여 놀릴 때 벌임인 경우만 나타났다. 심방 면담을 통해 독립된 제차로도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석살림에서 나타나는 소리로 덕담소리, 놀레소리, 서우젓소리, 담불소리, 니나니

소리를 중심으로 전승양상을 살펴보았다. 덕담소리와 놀레소리는 축원과 기원의 노래인 심방곡 <오느리>와 관련하여 비교분석하여 군웅본풀이와 관계에서 고려시대라는 시대적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서우젯소리는 선왕참봉신과 관련하여 불리는 소리인 것을 확인하였고 담불소리와 니나니소리는 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조상신의 성격도 불교적 성격인 경우에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우젯소리와 담불소리는 받는소리가 있어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제주도 전역 전파되어 다양한 전승현장에서도 구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IV장에서 석살림의 분석을 통해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살림의 특징은 열린 구조이다. 놀판이라는 제차를 통해 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석살림 제차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심방들의 교육의 장으로써의 기능까지 하는 것이다. 또한 내용으로 군웅본풀이, 조상신본풀이, 연유담음 등 다양한 내용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린곳을 보면 서우젯소리의 역할이 신을 표출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리의 유입과정에서의 본풀이와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과 타 지방의 곳에서 석살림과 비슷한 제차와의 비교 연구가 본 연구자의 수행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古樂譜』, 『韓國音樂散考』, 전통음악연구회, 1989.
- 國立國樂院 傳統藝術振興會 편저, 『琴合字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2, 은하출판사, 1989.
- 秋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 秋葉 隆 (심우성역), 『조선민속지』, 동문선, 1993.
- 강정식, 강소전, 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탐라문화총서2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강정식, 『동북리 본향당굿』,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인텍스, 2011
- 고광민·강정식, 『제주도추는굿』, 국립문화재연구소, 도서출판 피아, 2006.
- 문무병 외, 『북제주군 송당리 조사보고서』,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북제주군 추진협의회, 2004.
-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도서출판 황금알, 2005.
- 제주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1994년 동김녕 중당클 큰굿 자료집』, 도서출판 각, 2001.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석재 채록 한국 구연민요 자료집』, 민속원, 2004.
-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10.
-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9.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 민요 해설집』, 문화방송,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 12, 한국의 종교음악(2) [하룡남 불교음악], 원반 : Victor KJ-1083-A(KRE 148)

<http://100.daum.net> 다음 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한국민속문학사전. (집필자 허남춘)

2. 단행본

강동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2002.

강동학,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 집문당, 1996.

강정식, 『제주곳의 이해(1) 제차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강독』, 제주학연구소, 2014, 프린트.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민속원, 1997.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탐라문화학술총서 4집, 보고서, 2006.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7.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7.

조동일,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지식산업사, 2006.

진성기, 『제주도무속논고-남국의무속』, 민속원, 2003.

최철 편저,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허남춘, 『고려속요의 송도성 연구』, 한국문학도서관, 1991. (eBook)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서, 2011.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강경호, 「‘오느리’노래의 무가적 전통과 「심방곡」과의 관련 양상」, 『영주어문』 제17집, 2009.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 연구: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5.

강정식, 「제주 지역 무가의 전승양상과 지역적 특성 -무가를 중심으로-」, 『민속연구』 제20집, 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민속학연구소, 2010.

_____,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_____, 「제주무가 조사현장의 현장성」, 『민속연구』 제24집, 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민속학연구소, 2012.

_____,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민속연구』 제22집, 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민속학연구소, 2011.

김기형, 「〈오느리〉 유형의 기원과 전승 양상」, 『한국민속학』 제30집, 한국민속학회, 1998.

김현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_____,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문무병, 「제주민요에 나타난 무가」, 『역사민속학』 제1집,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박경신, 「무가의 작시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변성구, 「제주도 민속에 나타난 불교의 양상」, 『濟州佛敎』 제8호, 제주불교법우

회, 1984.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이보형, 「한국 무의식의 음악」, 『한국 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
연구소 출판부, 1982.

이상규, 「심방곡 연구」, 『온지학회』 제5집, 1999, 139쪽-155쪽.

조규익, 「초창기 歌曲唱詞의 장르적 위상에 대하여 : <북전>과 <심방곡>을 중
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12집, 1994.

